사기 史記 조선열전 朝鮮列傳

송준희 편저. 신완승 원문번역

B.C108년 단군조선의 일부였던 번조선의 우거왕은 한무제 와의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다. 사기 조선열전을 원문그대로 읽어본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말인가 ?

우리가 알고 있는 위만조선의 왕검성은 한반도 평양이 아니라 중국 하북성 창려유역에 있었다 . 사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찌 한사군이 한반도내에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60여장의 지도를 그려 사기 조선열전을 재 해설해 보았다. 진실된 역사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마음 간절하다.

서 문

역사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다!

지난 2천여 년 동안 우리는 기원전 108년에 위만조선의 우거왕이 한 무제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멸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사기조선 열전 원문을 자세히 본 사람이 이 땅에 단 한명도 없다는 말인가?

위만조선의 우거왕은 한 무제와의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으며 위만조선의 왕검성도 한반도 평양이 아닌 중국내 하북성 창려 유역이었다.

그 역사적 진실을 찾아 사서 원문에 충실하여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국내 최초로 그 내용을 지도상에 그려보았다.

이것은 초고에 불과하며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면 본문내용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음을 사전에 밝혀둔다. 번역에 도움을 준 신완순님, 교정에 수고하신 송 영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초벌번역은 여운건, 오재성 공저 '과학으로 밝혀진 우리고대사' 번역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시개천 5906년 음력 9월 27일(양력 10월 25일)

송준희 편저

신완순 원문번역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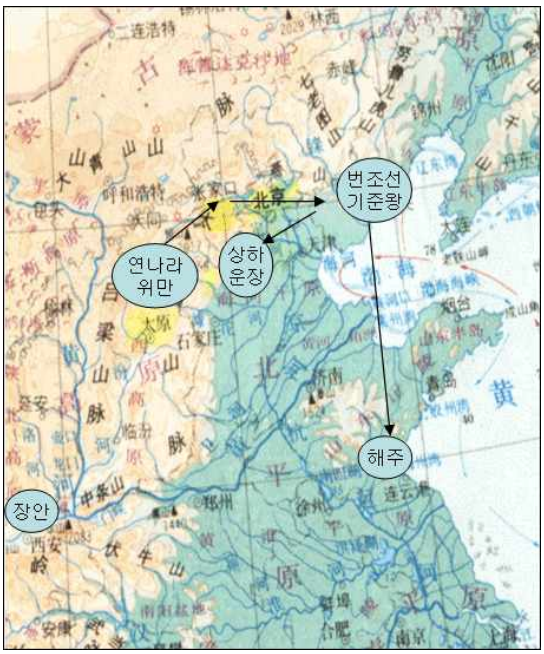
서 문 ---------- 1
차 례 ---------- 2
사기소개 ---------- 11

1. 기원전 108년 단군조선의 일부였던 번조선의 중심강인 열수는 하북성 영정하였다.---------- 12
2. 왕검성은 하북성 창려, 당시의 패수는 하북성 조하였다.---------- 18
3. 연나라 사람 위만이 번조선 왕 기준을 쫓아내고 왕이되다.-------- 23
4. 번조선 왕 위만의 손자 우거왕이 주변국들이 한무제에게 조공하는 것을 금지시키다.---------- 37
5. 한무제 사신 섭하를 파견하고 우거왕을 회유하였으나 거절하다. 섭하가 조선비왕 장을 죽이고 돌아가니 왕이 병사를 보내 섭하를 죽였다.----- 39
6. 한무제가 수륙양군으로 우거왕을 공격하였으나 패하다.---------- 44
7. 한무제가 사신 위산을 보내어 회유하나 실패하다.---------- 51
8. 수륙양군에 내분 일어 왕검성 함락에 실패하다.---------- 54
9. 제남태수 공손수를 사신으로 파견하여 수륙양군을 독려하였으나 실패하여 한무제가 공손수를 주살하다.---------- 57
10. 우거왕의 신하 4명이 한나라에 항복하다.---------- 61
11. 우거왕의 신하 이계상 삼이 왕을 시해하고 항복하다.---------- 64
12. 우거왕을 배반한 역적 5명에게 봉지를 주어 다스리게하다.--------- 67
13. 한무제가 봉한 조선사람 5인의 직위명과 봉한 지역.---------- 68
14. 사마천이 수륙양군이 패한 치욕을 한탄하다.---------- 78

별도자료 1 : 습수 ---------- 81
별도자료 2 : 고하 ---------- 92
별도자료 3 : 패수 ---------- 100

사기 조선열전 내용 요약편

1. 기원전 194년 연나라 사람 위만이 번조선 왕 기준을 속이고 왕검성을 접수하여 번조선 왕이 되다.



기원전 195년 연나라 사람 위만이 무리 천여명과 상투모양을 틀고 조선복식을 하고 단군조선의 삼한중 하나였던 번한(진한, 마한)으로 망명을 해오자, 번조선 74대 마지막왕 기준은 이를 허락하여 위만을 박사로 임명하고 번조선의 변방인 상하운장(하북성 태행산맥 유역 추정)을 지키며 살게 하였다.

☞ 북부여 1대 해모수 단군은 위만의 망명을 거부하였으나, 번조선 기준왕은 실수로 망명을 허락하였다.(북부여기)

결국 변방의 세력을 확장한 위만은 한나라 군사가 열길로 나누어 쳐들 온다고 거짓 정보를 흘려 방비대책을 논하자고 왕검성에 입성하여 기준을 쫓아내고 스스로 번조선왕이 된다.(위략)

기준왕은 위만에 쫓겨나 남하하여 해(산동성 아래 해주와 회수유역)땅으로 가서 나라를 일구었다.

2. 기원전 109년 번조선 왕 위만의 손자 우거왕이 주변국들이 한무제에게 조공하는 것을 금지시키다.

기원전 108년(원봉2년) 단군조선의 3한(진한, 마한, 번한)중 하나였던 번조선의 우거왕(위만의 손자)이 한나라 무제에게 조공을 하지않고 주변국이 조공하는 것 조차 막으니 한무제가 우거왕이 있는 왕검성(하북성 창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회유를 시도하게 되었다.

☞ 이때 동이땅 진번, 임둔이 우거에 속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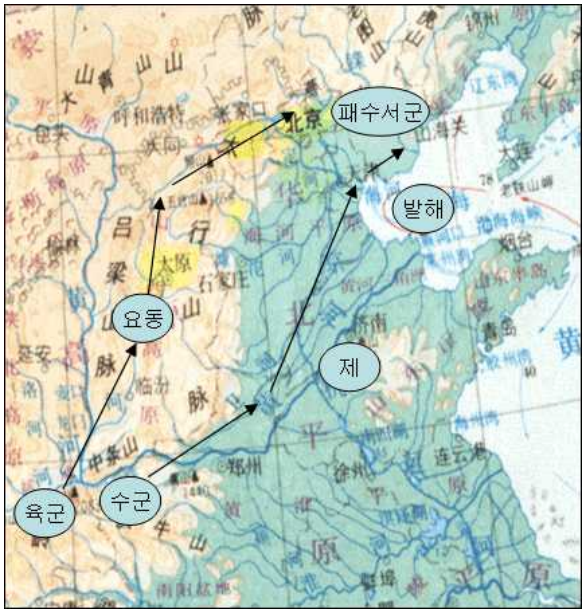
한무제가 사신 섭하를 파견하여 회유를 하나 우거왕이 거절하자 섭하는 소득이 없이 돌아가게 되는데, 외교적 실패를 우려한 섭하가 패수가에서 배웅나온 조선비왕 장을 살해 하고 평주 유림관(산서성 유림)을 통하여 한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전과를 보고받은 한무제는 섭하의 공로를 인정하여 요동동부도위에 임명을 하게 되는데, 격노한 우거왕이 군사를 보내 섭하를 습격하여 살해하게 된다.

☞ 이때 공격한 곳이 산서성 유역으로 보여진다.

섭하 살해소식을 들은 한무제가 격노하여 수륙양군을 보내 우거왕을 공격하게 하니 우리역사상 '한사군 전쟁' 으로 알려진 한무제와 번조선 우거왕의 전쟁이 드디어 시작되게 된다.

3. 한무제가 수륙양군으로 공격하나 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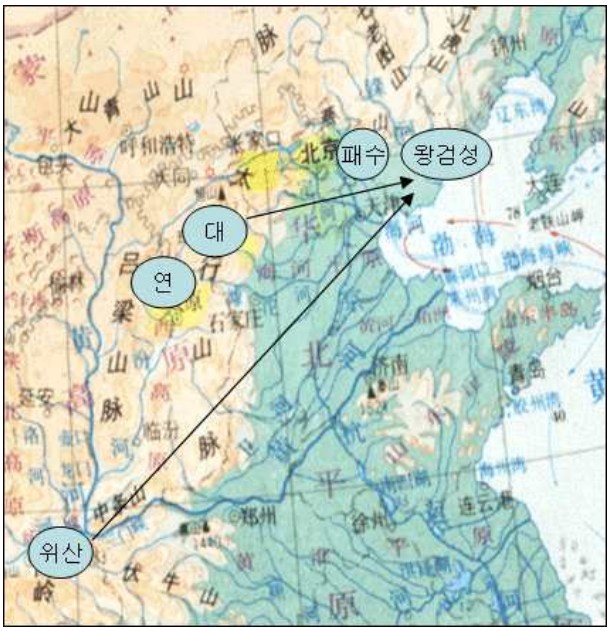
한무제는 수륙양군을 파견하여 우거왕의 왕검성을 공격하게 된다.

누선장군 양복(수군 사령관)에게는 제땅 군사 7천명을 주어 발해를 거쳐 왕검성을 치게 하였으나, 육군을 기다리지 않고 수군 단독으로 공격을 하다가 우거왕의 군사에게 대패하여 군사를 잃고, 산속에서 10여 일을 숨어지내다 패잔병을 수습하여 장안으로 돌아오자 한무제가 패전의 책임을 물어 참수하였다.

좌장군 순체(육군사령관)에게는 군사 5만을 주어 산서성 상건하를 타고 북경 북쪽으로 우회하여 공격 하였으나, 패수서군(하북성 조하)에 막혀 진격하지 못하였다.

육군의 졸정 '다'가 요동(산서성)의 군사를 이끌고 순체보다 먼저 공격하였으나 패하여 장안으로 도망오니 한무제가 패전의 책임을 물어 참수하였다.

4. 한무제가 2차 사신을 파견하나 우거왕은 태자를 보내 한무제를 오히려 치려 시도하다.



한무제가 우거왕을 다시 회유하기 위해 위산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협박하자, 우거왕이 항복의 의사를 표시하고 태자(장)를 시켜 말 5천필과 식량을 바치고자 무장한 백성 1만명과 함께 장안으로 보낸다.

패수가에 이르러 사신 위산과 좌장군 순체가 태자 일행이 변을 일으킬까 우려하여 무장해제를 요구하자, 태자는 이를 거부하고 왕검성으로 되돌아 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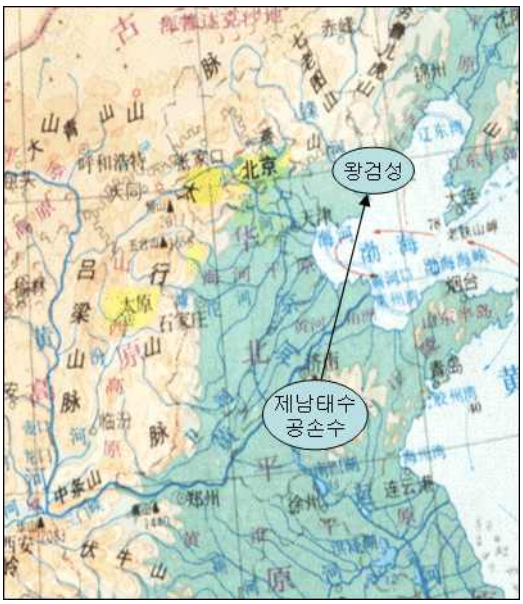
☞ 거짓 항복하고 오히려 장안을 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임

위산이 장안으로 돌아가 한무제에 보고하니 책임을 물어 위산을 참수하였다.

이에 한무제는 수륙양군을 다시보내 패수상군을 격파하고 왕검성 아래 도달하여 포위하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함락을 시키지 못한다.

☞ 육군군사들은 산서성 연, 대 지역에 있는 사나운 군사를 동원함

5. 수륙양군이 공격하나 왕검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고 한무제가 보낸 사신 공손수가 책임을 물어 참수 당하다.



좌장군은 연, 대 지역의 사나운 군사들을 데리고 승리하여 교만한 상태였으나, 누선장군의 병사들은 이미 여러 번 패하여 공포에 질려있었다.

좌장군이 협공을 제의하나 왕검성 대신들이 누선장군에게 곧 항복할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니 이를 받아들여 공격치 않았다.

공격이 여러달 지연되자 좌장군은 누선장군이 오히려 왕검성과 내통하여 배신할 것을 우려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이에 한 무제는 제남태수 공손수를 사신으로 파견하여 전쟁을 독려하게 되는데 좌장군이 누선장군의 변절 우려성을 전하자 누선장군을 체포하고 수군을 좌장군에 속하게 하여 왕검성을 공격하나 함락시키지를 못한다.

공손수가 장안으로 돌아와 사실을 보고하자 한무제가 군사 분열을 조장한 책임을 물어 공손수를 참수하게 된다.

6. 우거왕이 시해 당하고 왕검성이 스스로 항복하다.

수륙양군이 왕검성을 공격하니 대신들이 함락될 것을 두려워하여 우거왕에게 항복을 권유하나 이를 듣지 않자, 재상 로인, 재상 한음, 이계상 삼, 장군 왕겹등이 왕검성을 나와 한나라에 항복하게 된다.

☞ 재상 로인은 도중에 죽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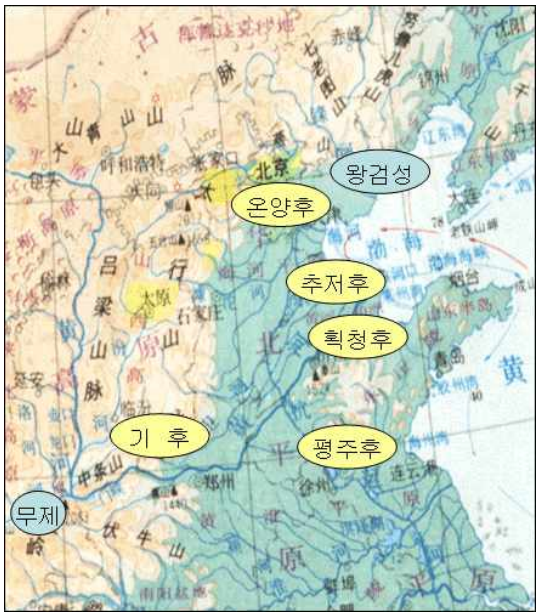
이계상 삼은 원봉3년(B.C. 108년) 여름 사람을 보내 우거왕을 시해하고 한나라에 항복한 자이다. 그러나 우거왕이 죽었음에도 대신 성기(成己)가 왕검성을 지켜 함락되지 않았다.

결국 공격에 실패한 좌장군이 우거의 아들 장(長)과 항복한 상 로인의 아들 최(最)를 시켜 왕검성내 백성들을 회유케 하여 충신 성기(成己)를 죽이고 스스로 왕검성 문을 열어 항복하게 된다.

이로써 마침내 번조선을 도모하여 사군(四郡)을 삼았다.

☞ 4군의 이름은 없고 조선 5군만이 존재할 뿐이다.

7. 우거왕을 시해하고 한나라에 항복한 역적들에게 나누어준 봉지는 하북성, 산동성 일대로 조선땅이었다.



번조선의 역적들에게 나누어준 봉지

- 이계상 삼 : 획청후 (산동성 제 지역)
- 한음 : 추저후 (발해지역, 천진부)
- 장군 왕겹 : 평주후 (산동성 태안 지역)
- 우거왕의 왕자 장 : 기후 (산서성 로주 지역)
- 로인의 아들 최 : 온양후 (하북성 회유지역)

한사군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천이 사기 조선열전을 기록할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다섯명의 번조선인이 통치한 조선 5군만이 있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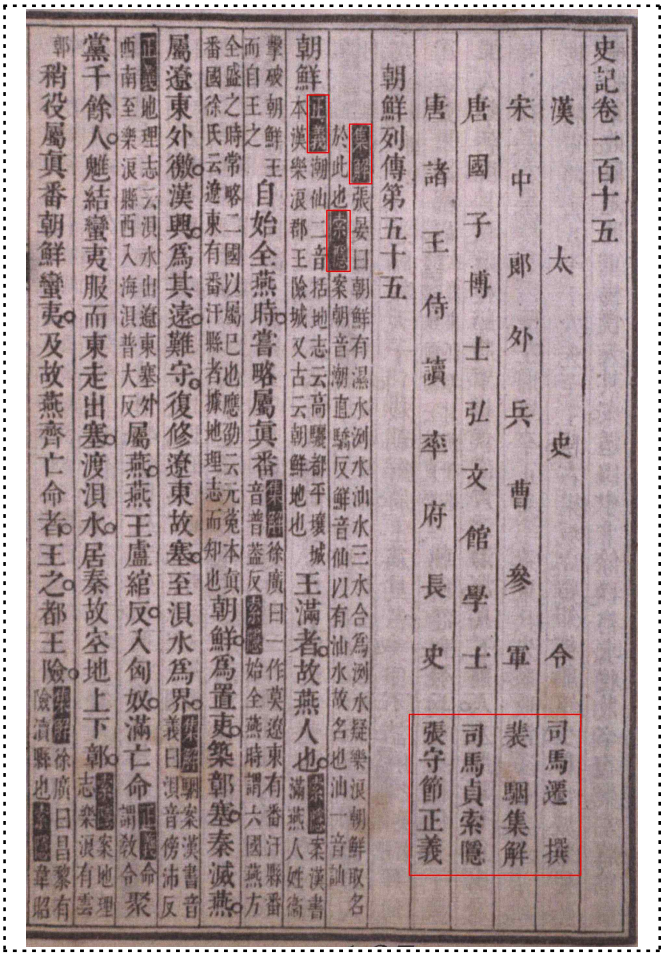
진번·임둔·낙랑·현도라고 하는 한 4군의 기록도 후대 송나라때(420-479) 배인이 추가로 보충 설명한 집해에 나올 뿐이다. 한사군은 없었다.

더구나 한단고기 북부여기를 보면 왕검성이 스스로 항복하자 고두막한(북부여 5대 단군)이 의병을 일으켜 한나라 군사를 연파하여 물리쳤다고 되어있다.

하북성에 일어난 전쟁이 어찌 한반도 평양으로 올수 있다는 말인가?
번조선은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기 조선열전의 진실인 것이다.

- 공 란 -

[사기(史記) 소개]


史記卷一百十五
漢　太　史　令　司馬遷　撰
宋中郎外兵曹參軍裴駰集解
唐國子博士弘文館學士司馬貞索隱
唐諸王侍讀率府長史張守節正義
朝鮮列傳第五十五
朝鮮 本漢樂浪郡王險城又古云朝鮮地也 王滿者故燕人也 自始全燕時嘗略屬真番

『사기(史記)』는 중국의 시조라 하는 황제(黃帝)에서 시작하여 전한 무제(前漢 武帝)말기까지의 역사를 본기(本紀, 12권)·표(表, 10권)·서(書, 8권)·세가(世家, 30권)·열전(列傳, 70권) 총 130권으로 구성한 중국 최초의 역사서로 무제(漢武帝) 정화(征和) 2년(B.C.91)경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원문보는 방법]

(1) 조선열전 (본문중 큰글자)

한 무제의 명으로 사마천(司馬遷)이 직접 기술한 내용

○ 한나라 무제 : B.C. 141 - 87

○ 사마천 : B.C. 145 - 86

(2) 집해(集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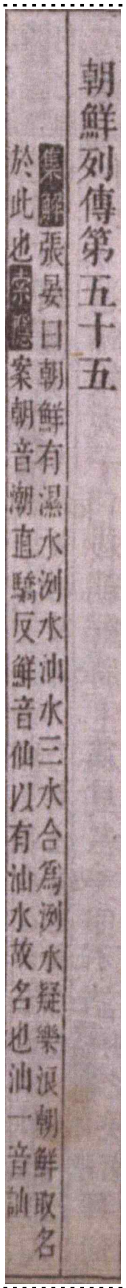
사마천의 원문에 대하여 송나라때(420 - 479) 배인(裴駰)이 추가로 보충 설명한 내용이다.

(3) 색은(索隱), 정의(正義)

배인의 집해에 이어 당나라때(618 - 907) 학자들이 또 추가설명 한 것으로 사마정(司馬貞)이 색은(索隱)을 장수절(張守節)이 정의(正義)를 하였다.

☞ 원문 : 국립중앙도서관 사마천 사기(1909년 영송백납본 影宋百衲本)

1. 기원전 108년 단군조선의 일부였던 번조선의 중심강인 열수는 하북성 영정하였다.


朝鮮列傳第五十五
集解張晏曰朝鮮有濕水洌水汕水三水合爲洌水疑樂浪朝鮮取名於此也索隱案朝音潮直驕反鮮音仙以有汕水故名也汕一音訕

[원문]

朝鮮列傳 第五十五
조선열전 제오십오

[集解] 張晏曰 朝鮮有 濕水洌水汕水, 三水合爲洌水, 疑樂浪朝鮮取名於此也.
[집해] 장안왈 조선유 습수열수산수, 삼수합위열수, 의낙랑조선취명어차야.
[索隱] 案 朝音潮, 直驕反. 鮮音仙. 以有汕水, 故名也. 汕一音訕.
[색은] 안 조음조, 직교반. 선음선. 이유산수, 고명야. 산일음산.

[해설]
조선열전 제 55

[집해]
장안(후한때 인물)이 말하기를 '조선에는 습수(濕水)·열수(洌水)·산수(汕水, 또는 선수仙水)가 있는데, 3수가 합하여 열수(洌水)가 되니, 낙랑(樂浪)에 있는 조선(朝鮮)의 이름은 이것을 취하여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하였다.

○ 낙랑조선 (樂浪朝鮮)
1. "낙랑" "조선" : 둘다 국가의 명으로 생각할 경우
2. 낙랑조선 : 하나의 국가로 생각할 경우
3. 낙랑의 조선 : 조선이 낙랑에 있다고 해석할 경우
→ 여기서는 '낙랑 땅에 있는 조선'으로 보았다.

[색은]
살펴 보건대, 조(朝)는 음이 조(潮)이며, '죠(직교반直驕反)'이다. 선(鮮)의 음은 선(仙)인데, '산수(汕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산(汕)의 음은 산(訕)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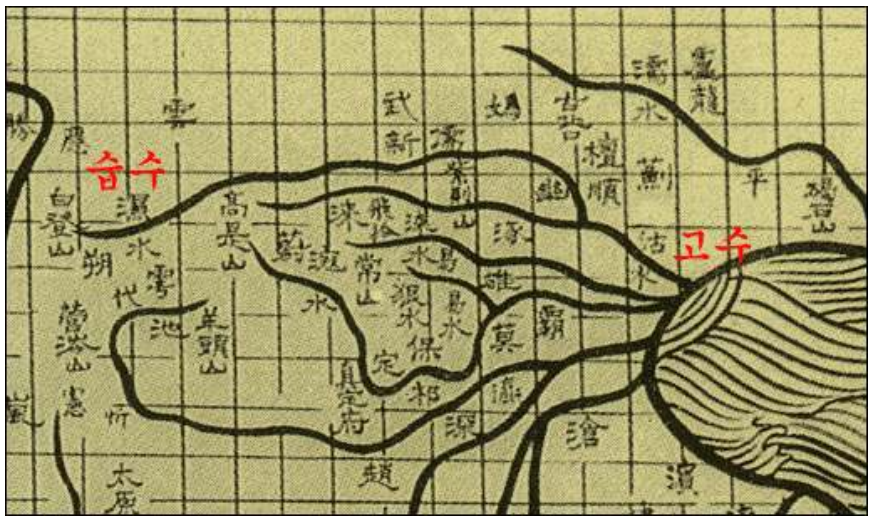
○ **보충설명**

1. 조(朝)나 조(潮)의 현 차이나 발음은 '차오(chao)' 또는 '초'이다.
2. 직교(直驕)의 현 차이나 발음을 보면 직(直)은 '즈(zhi)' 이며, 교(驕)는 '쟈오(jiao)' 또는 '쬬'이다. 따라서, 직교(直驕)를 반절음으로 읽으면 '쟈오(zhao)' 또는 '죠'가 된다.
3. 汕 의 발음은 '산'인데, '선'과도 혼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세부해설 : 습수(濕水)**

- 사마천의 사기 조선열전에 나오는 3개의 강, 즉 습수・열수・산수(또는 선수) 중 '습수(濕水)'는 산서성 대동시 유역에서 발원하는 강으로 산서성에서는 상간하(또는 상건하), 하북성에서는 영정하라고 불렀다.

1. 중국 송나라 고지도인 '우적도'에 나오는 습수



- 중국 송나라 고지도인 우적도에 의하면 중국 태행산맥 서쪽 산서성 대동시 아래 백등산에서 발원하는 현재의 '상건하(또는 상간하)'를 습수(濕水)라 표시하고 있다.

- 상건하는 동쪽으로 하북성 탁록을 경유하여 북경 북쪽 관청수고를 거쳐 북경 아래쪽을 휘감아 돌아 천진 하구를 거쳐 발해만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하북성에서는 '영정하'라 한다. 고지도상 발해만으로 빠지는 하구는 '고수(沽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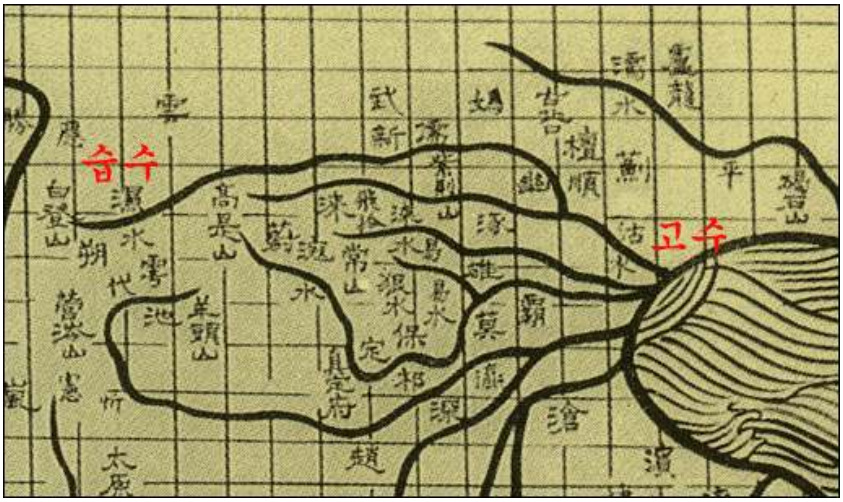
- 이곳이 바로 단군조선이 진한, 마한, 번한으로 분치한 통치강역 중 번한(위만조선)의 중심지를 흐르는 강이었던 '열수'였던 것이다.

2. 현재 중국지도에 나타나는 고조선의 중심강 습수

☞ 중국의 하천을 기록한 '수경주'에 나오는 습수(습여수) 해설은 '별도자료 1' 참고

□ 고조선 열수의 위치 비교

1. 실제 위치 : 산서성 상건하, 하북성 영정하 (송나라 우적도)



2. 이병도 국사대관 : 대동강 (근거가 없다)

3. 중학교 사회과 부도 : 대동강 (이병도 설 적용)

4. 열수의 위치 비교지도

- 국내학자들은 일제강점기의 반도사관을 주입하기 위해 일본학자들이 조작한 '한반도 대동강=열수' 설(說)을 60여 년째 규명 없이 수용하고 있으나 아무런 근거가 없다.

- 중국대륙에 있어야할 고조선의 중심이 되는 강인 열수를 근거도 없이 2천㎞를 이동시켜 한반도 대동강으로 비정하고 역사를 조작한 것이다.

2. 왕검성은 하북성 창려, 당시의 패수는 하북성 조하(潮河) 였다.

朝鮮 正義 潮仙二音括地志云高驪都平壤城本漢樂浪郡王險城又古云朝鮮地也

[원문]

朝鮮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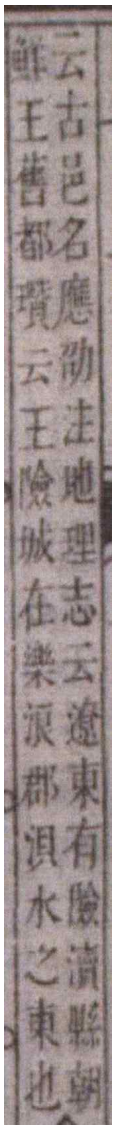
[正義 : 潮仙二音. 括地志云高驪都平壤城, 本漢樂浪郡王險城, 又古云朝鮮地也.]
[정의 : 조선이음. 괄지지운고려도평양성, 본한낙랑군왕험성, 우고운조선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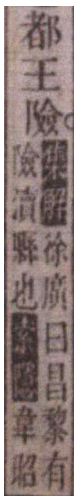
[해설]

조선

[정의]
조선(潮仙) 2개 음이다. 괄지지에 이르길, '고려는 평양성에 도읍하였는데 본래 한나라 낙랑군 왕검(험)성이며 또 옛부터 말하기를 조선의 땅이라 한다.'고 하였다.

○ 고 려 : 고구려를 말함.
○ 평양성 : 미상지이나 한반도 평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왕검성 : 하북성 창려.
○ 한나라 낙랑군 : 산서성 상산(현재의 항산) 인근에 있었다.





○ 왕험(검)성(王險城) : 하북성 창려(昌黎)

왕검성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뒤편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소개한다. (위만)조선의 왕험(검)성은 하북성 '창려'라는 기록이다.

[원문]

[集解] 徐廣曰 昌黎有險瀆縣也.
[집해] 서광왈 창려유험독현야.
[索隱] 韋昭云 古邑名. 徐廣曰 昌黎有險瀆縣. 應昭注 地理志 遼東險瀆縣, 朝鮮王舊都. 臣瓚云 王險城在樂浪郡浿水之東也.
[색은] 위소운 고읍명. 서광왈 창려유험독현. 응소주 지리지 요동험독현, 조선왕구도. 신찬운 왕험성재락랑군패수지동야.

[해설]

[집해]
서광이 말하기를, '창려(昌黎)에 험독현(險瀆縣)이 있다.'고 하였다.

○ "창려(昌黎) = 험독(險瀆縣) = 왕험성(王險城)"이라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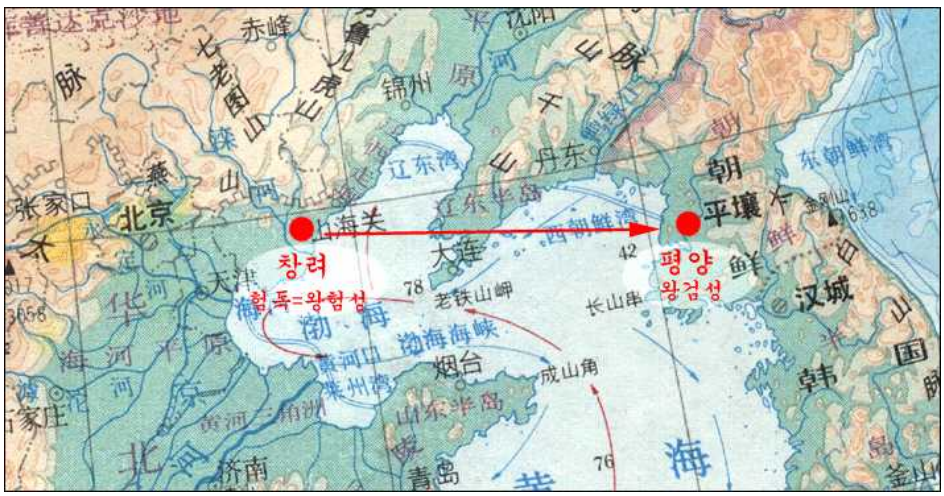
[색은]
위소가 이르길 '험독은 (위만조선의) 옛 도읍 이름이다'라고 하였고, 서광이 말하길 '창려에 험독현이 있다'고 하였으며, 응소는 지리지의 주(注)에서 '요동의 험독현은 조선왕의 옛 도읍이다'라 하였고, 신찬은 '왕험성은 낙랑군(樂浪郡) 패수(浿水)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 위치로 보면 '낙랑군, 패수' 동쪽에 → '창려, 험독현, 위만조선의 수도 왕험성' 이다.
○ 패수(浿水) : 하북성 조하(潮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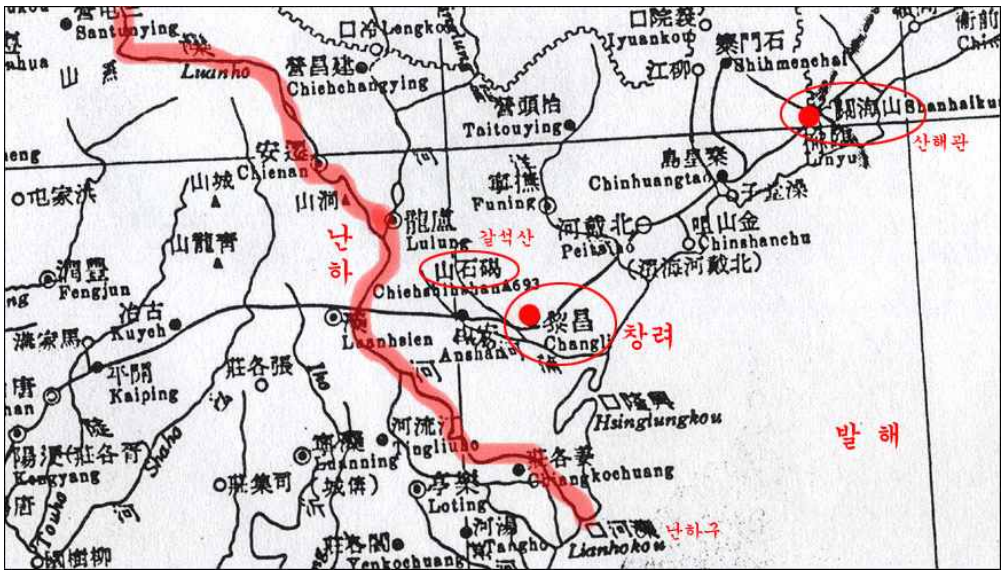
□ 지도설명

1. 왕검성은 하북성 창려

- (위만)조선의 수도 왕검성은 하북성 창려(昌黎)인데 일본학자들이 반도사관 주입을 위해 동쪽으로 1,200㎞ 이상을 이동시켜 한반도 평양이 왕검성이라 조작하였다.



2. 하북성 창려의 세부위치



- 중국 하북성 난하 우측에 '창려(昌黎)'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이 단군조선 삼한 중 번조선 왕 위만(후대 손자인 우거까지 이어짐)이 통치하던 번한의 수도가 있던 '왕검성'이다.

- 중요지명으로는 '창려'와 '산해관'이 있으며 유명한 '갈석산'있고 중요강인 '난하'가 흐르고 있는 지역이다.

3. 한서지리지 : 험독 = 하북성 '창려'

漢書 卷二十八下 地理志第八下
한서 권이십팔하 지리지제팔하
요동군(遼東郡)편에 나오는 <u>험독(險瀆)</u>에 대한 설명부분

應劭曰 朝鮮王滿都也 依水險 故曰 險瀆
응소왈 조선왕만도야 의수험 고왈 험독
臣瓚曰 王險城在樂浪郡浿水之東 此自是險瀆也
신찬왈 왕험성재악랑군패수지동 차자시험독야
師古曰 瓚說是也 浿音普大反
사고왈 찬설시야 패음보대반

응소가 이르기를 '(험독은) 조선왕 (위)만의 도읍지이다. 물이 험한 지역에 의지해 살기 때문에 험독이라 한다.'고 하였으며, 신찬이 이르기를 '왕험성은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다. 이곳은 이로 인하여(또는 이 때부터) 험독이다.'라고 하였다.

사고가 이르기를, "(신)찬이 말한 것이 맞다. 패(浿)의 음은 '배(보대반 普大反) '배'이다."

○ 보충설명 : 현재 지나 발음으로 보대(普大)는 '푸따, 푸다이'인데 이것을 반절음으로 읽으면 '파, 파다이, 패'가 된다.

□ 패수(浿水) : 하북성 조하(潮河)

- (정본)한단고기에는 '패수'가 현재 하북성 '조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己亥三十八年燕盧綰復修遼東故塞東限浿水浿水今潮河也

己亥38年
기해38년

燕盧綰復修遼東故塞東限浿水 浿水今潮河也.
연노관복수료동고새동한패수 패수금조하야.

기해 38년(B.C. 202년)
연나라 노관이 요동의 옛 요새를 다시 수리하고 패수를 동쪽의 경계로 삼았다. 패수는 지금의 조하(潮河)이다.

고 임승국 번역본에는 패수는 지금의 난하(灤河)라고 되어 있으나 한뿌리출판사에서 출간한 '정본 한단고기'에는 조하(潮河)라 기록되어 있다. 위 '정본한단고기'는 단단학회 소장본으로 최근 공개된 진본이다.

조하의 위치는 북경 상류에 있는 강이다. '습수=열수=영정하'. '패수=조하'. '백하'와 '조하'가 합류하여 발해만으로 빠지는 강이 '조백신하'이다.

3. 연나라 사람 위만이 번조선 왕 기준을 쫓아내고 왕이되다.

擊破朝鮮王而自王之
王滿者故燕人也索隱案漢書滿燕人姓衛

[원문]

王滿者, 故燕人也.
왕만자, 고연인야.
[索隱] 案 漢書, 滿, 燕人, 姓衛, 擊破朝鮮而自王之.
[색은] 안 한서, 만, 연인, 성위, 격파조선이자왕지.

[해설]

(조선)왕 '만(滿:위만)'은 연나라 사람이다.

[색은]
한서에 '만'은 연나라 사람이며, 성은 '위(衛)'씨로 조선을 쳐서 스스로 왕이라 했다.

○ 위만 : 노관의 부장

- 연나라 사람 노관은 한고조 유방과 죽마고우요, 창업공신이다. 유방이 노관의 허물을 감싸주는 유일한 지지세력이었는데 유방이 죽으니 신변의 위협을 느껴 흉노로 망명하여 동호노왕에 봉해진다.

- 노관의 부장이었던 위만도 마찬가지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번)조선으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다.

自始全燕時嘗略屬眞番 徐廣曰一作莫遼東有番汗縣番音普蓋反 始全燕時謂六國燕方全盛之時常略二國以屬已也應劭云元菟本眞番國徐氏云遼東有番汗縣者據地理志而知也

[원문]

自始全燕時嘗略屬眞番朝鮮
자시전연시상략속진번조선

[集解] 徐廣曰 一作莫 遼東有番汗縣 番音普蓋(寒)反
[집해] 서광왈 일작막 료동유번한현 번음보개(한)반
[索隱] 始全燕時，謂六國燕方全盛之時 常略二國以屬己也
[색은] 시전연시，위 6국연방전성지시 상략 2국이속기야
應劭云 元菟本眞番國. 徐氏云 遼東有番汗縣 者據地理志而知也.
응소운 원도본진번국. 서씨운 요동유번한현 자거지리지이지야.

[해설]

연(燕)나라가 전성할 때부터 일찌기 진번과 조선을 침략하여 연나라에 복속하게 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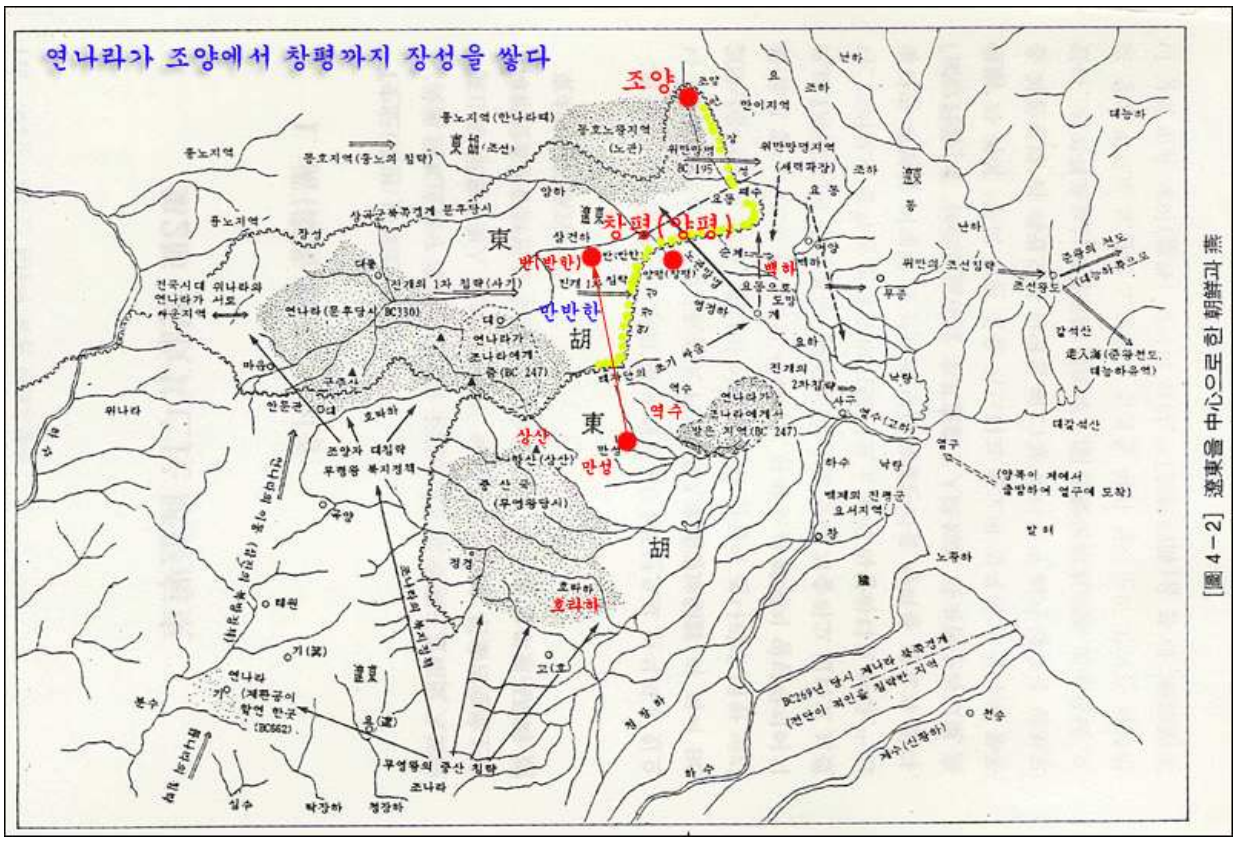
[집해]
서광이 이르기를, "일설에는 (진번을)「막(莫)」이라 한다. 요동에 번한현(番汗縣)이 있다. 번(番)의 음은 '배(반):(보개普蓋(한寒)반反)'이다. "라고 하였다.

※ 진번조선(眞番朝鮮)을 막조선(莫朝鮮)이라고도 되어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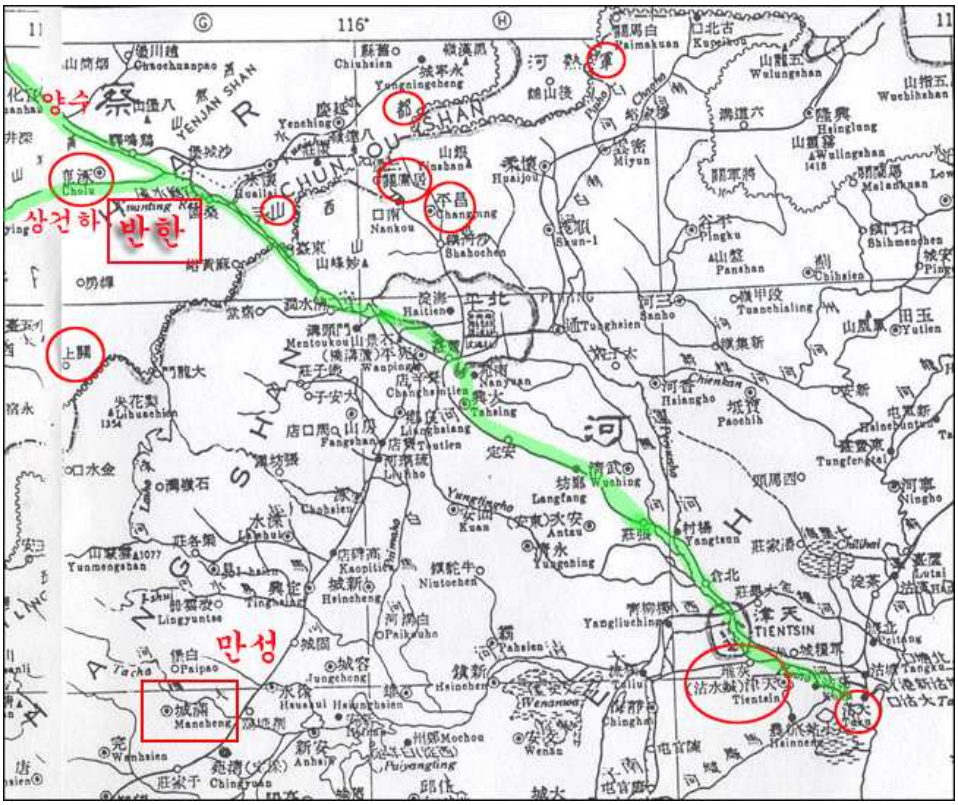
[색은]
'연나라 전성시'라는 것은 즉 '전국시대인 6국 시절의 연나라가 전성할 때, 항상 두 나라를 침략하여 연나라 복속으로 한 시기를 말한다.'라고 하였으며, 응소가 이르기를, "원도(元菟:玄菟)는 본래 진번국(眞番國)이다."라고 하였다. 서씨가 이르기를, "요동에 번한현(番汗縣)이 있다. '지리지'에 의거하여 알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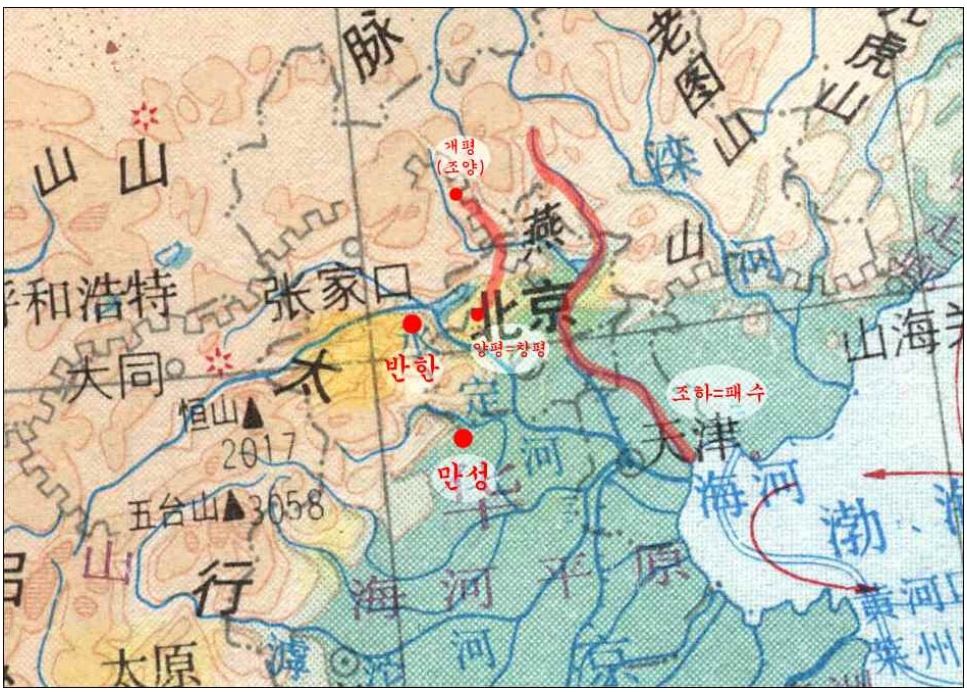
□ 보충설명 : 만반한의 위치는 하북성 태행산맥 유역

- 나동현 저 '중국북방이족과 조선상고사'에 의하면 만반한의 위치를 중국 하북성 '반한'과 '만성'을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반한이 번한현(番汗縣)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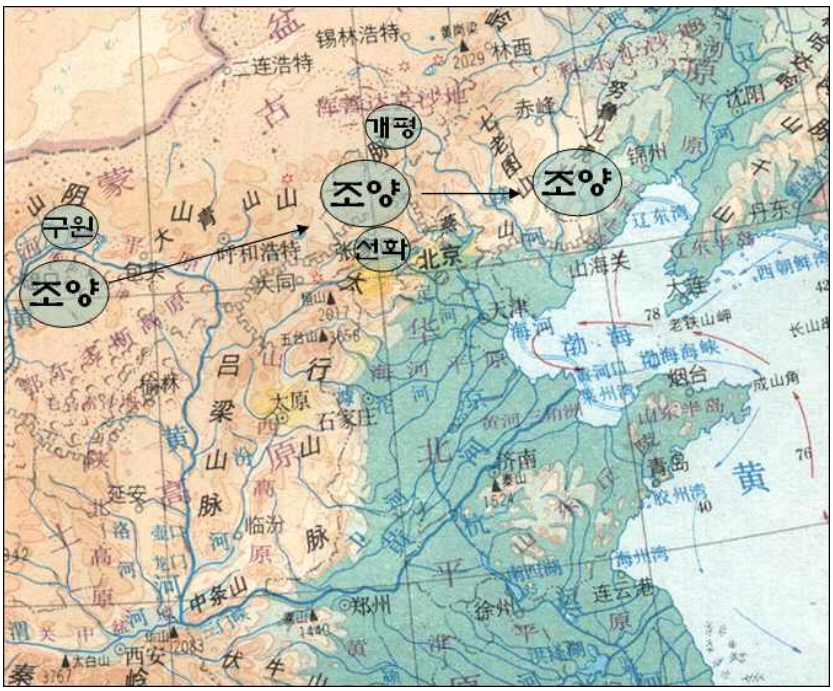


[圖 4-2] 遼東을 中心으로 한 朝鮮과 燕


양수
상건하
반한
만성
TIENTSIN


개평
(조양)
양평=창평
반한
만성
조하=패수
北京
天津
张家口
大同
恒山
2017
五台山
3058
太原

□ 조양(造陽) 이동도



1. 조양(造陽) : 한암당 이유립 대배달 민족사 해설

- 조양(造陽)은 진태강지(晉太康志)에서 오원(五原)의 요새(塞)의 북쪽이라 하고 사기 조세가(趙世家)에 무령(武靈)이 양지(攘地)하여 북으로 연(燕), 대(代)에 이르고 서쪽으로 운중(雲中)과 구원(九原)에 이른다 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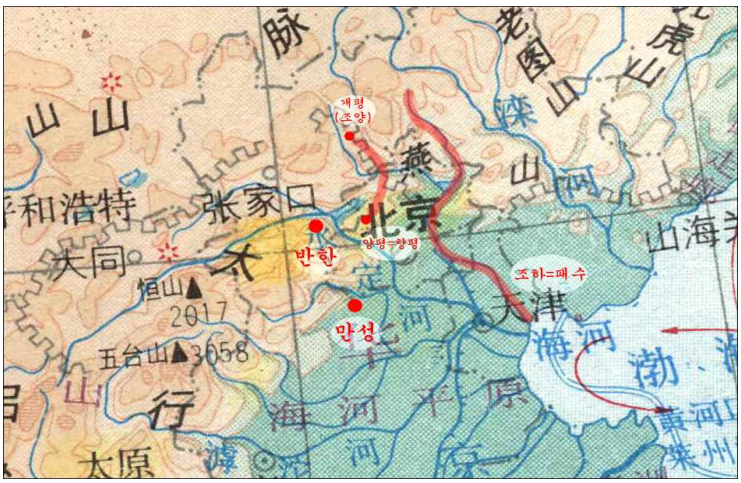
- 한서 흉노전에 호한사(呼韓邪) 선우(鮮于)가 오원의 요새를 관(款)하였다고 하고

- 수경주(水經注)에 구원군(九原郡)은 한(漢)무제 원삭2년에 오원이라 이름을 바꾸었다 하니 오원과 구원은 같은 땅이다.

- 구원(九原)은 오늘날 수원성(綏遠省) 오원현(五原縣)이며 조양(造陽)은 오늘날 폐(廢)한 승주(勝州)이다.

2. 조양(造陽) : 사기(史記)의 기록

- 燕亦築長城 自造陽 至襄平(연역축장성 자조양 지양평)
  연(燕) 역시 장성을 쌓으니 조양에서 양평까지이다.



3. 조양(造陽) : 전한서의 기록

- 前漢書卷二十四下考證(전한서권이십사하고증)
  造陽則在上谷之北 今宣化府邊外地(조양칙재상곡지북 금선화부변외지)
  조양은 즉 상곡의 북쪽에 있으며 오늘날 선화부(宣化府)의 변두리 땅이다.

- 前漢書卷九十四上考證(전한서권구십사상고증)
  漢亦棄上谷之斗辟縣造陽地以予胡注云云 ….
  한역기상곡지두벽현조양지이여호주운운 ….
  据後文則造陽之北凡九百里後世如開平小興州等地疑卽古之造陽
  거후문칙조양지북범구백리후세여개평소흥주등지의즉고지조양
  한(漢) 역시 상곡의 두피현(斗辟縣) 조양(造陽)의 땅을 호(胡)에게 주었다고 주(注)에 운운….
  후문(後文)에 의하면 즉 조양의 북쪽 900리가 후세의 개평(開平) 소흥주(小興州) 등지의 땅이며 이 곳이 옛 조양(造陽)이 아닌가 한다.

屬遼東外徼漢興爲其遠難守復修遼東故塞至浿水爲界
朝鮮爲置吏築鄣塞秦滅燕
正義地理志云浿水出遼東塞外西南至樂浪縣西入海浿普大反屬燕
駰案漢書音義曰浿音傍沛反

[원문]

(自始全燕時嘗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鄣塞.
(자시전연시상략속진번)조선. 위치리, 축장새.
秦滅燕, 屬遼東外徼.
진멸연, 속료동외요.
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浿水爲界
한흥, 위기원난수, 부수료동고새, 지패수위계

[集解] 駰案漢書音義曰 浿音傍沛反.
[집해] 인안한서음의왈 패음방패반

[正義] 地理志云 浿水出遼東塞外, 西南至樂浪縣西入海. 浿普大反.
[정의] 지리지운 패수출료동새외, 서남지락랑현서입해. 패보대반.

屬燕.
속연.

[해설]

[연(燕)나라가 전성할 때부터 일찌기 진번과 조선을 침략하여 연나라에 복속하게 하였고,] 관리를 두었으며 장새를 쌓았다.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망시키자, 요동 밖을 변경으로 하였다. 한나라가 일어나고, 그 곳이 멀고 지키기 어려워지자 다시 요동의 옛날 요새를 수리하였으며, 패수(浿水)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 삼았다.

[집해]
한서(漢書) 음의(音義)에 이르기를, "패(浿)음은 '배(방패반傍沛反)'다"라고 하였다.

[정의]
지리지에서 이르기를, "패수는 요동의 요새 바깥쪽에서 흘러 나와 서남으로 낙랑현 서쪽에 이르러 바다에 흘러 들어 간다. 패(浿)의 음은 '배(普大反)'다." 라고 하였다.

□ 패수(浿水) : 하북성 조하(潮河)

- (정본)한단고기에는 '패수'가 현재 하북성 '조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己亥三十八年燕盧綰復修遼東故塞東限浿水浿水今潮河也

己亥38年(기해38년)

燕盧綰復修遼東故塞東限浿水 浿水今潮河也.
연노관복수료동고새동한패수 패수금조하야.

기해 38년(B.C 202년)
연나라 노관이 요동의 옛 요새를 다시 수리하고 패수를 동쪽의 경계로 삼았다. 패수는 지금의 조하(潮河)이다.

○ 수경주에 나오는 '패수(浿水)' : [별도자료 2] 참고

※ 기 설명한 자료이므로 추가설명 생략

燕王盧綰反入匈奴滿亡命[正義]命謂教令聚黨千餘人魋結蠻夷服而東走出塞渡浿水居秦故空地上下鄣[索隱]案地理志樂浪有雲鄣

[원문]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연왕로관반, 입흉노, 만망명,
[正義] 命謂教令.
[정의] 명위교령.
聚黨千餘人, 魋結蠻夷服而東走出塞,
취당천여인, 퇴결만이복이동주출새,
渡浿水, 居秦故空地上下鄣,
도패수, 거진고공지상하장,
[索隱] 案 地理志 樂浪有雲鄣.
[색은] 안 지리지 락랑유운장.

[해설]

'연왕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여 흉노로 도망가고, '(위)만'이 명령을 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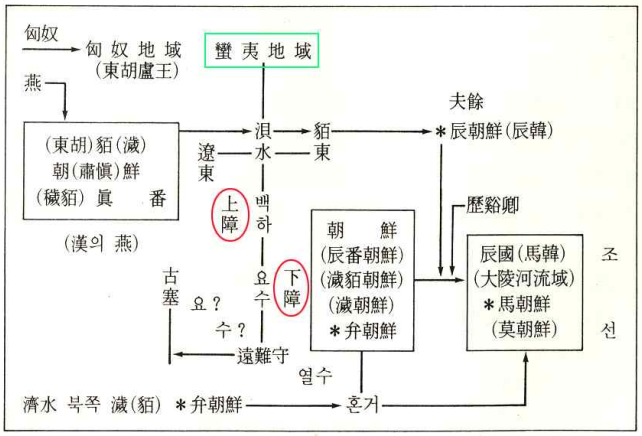
[정의] 명(命)은 교령(教令)이라 한다.

그 무리 천여 명과 상투를 틀고 '만이(蠻夷)'의 복식으로 바꾸고 동쪽으로 달아나 요새를 벗어났다. 패수를 건너 진나라의 옛 '공지(空地)'인 '상하장(上下鄣)' 땅에 살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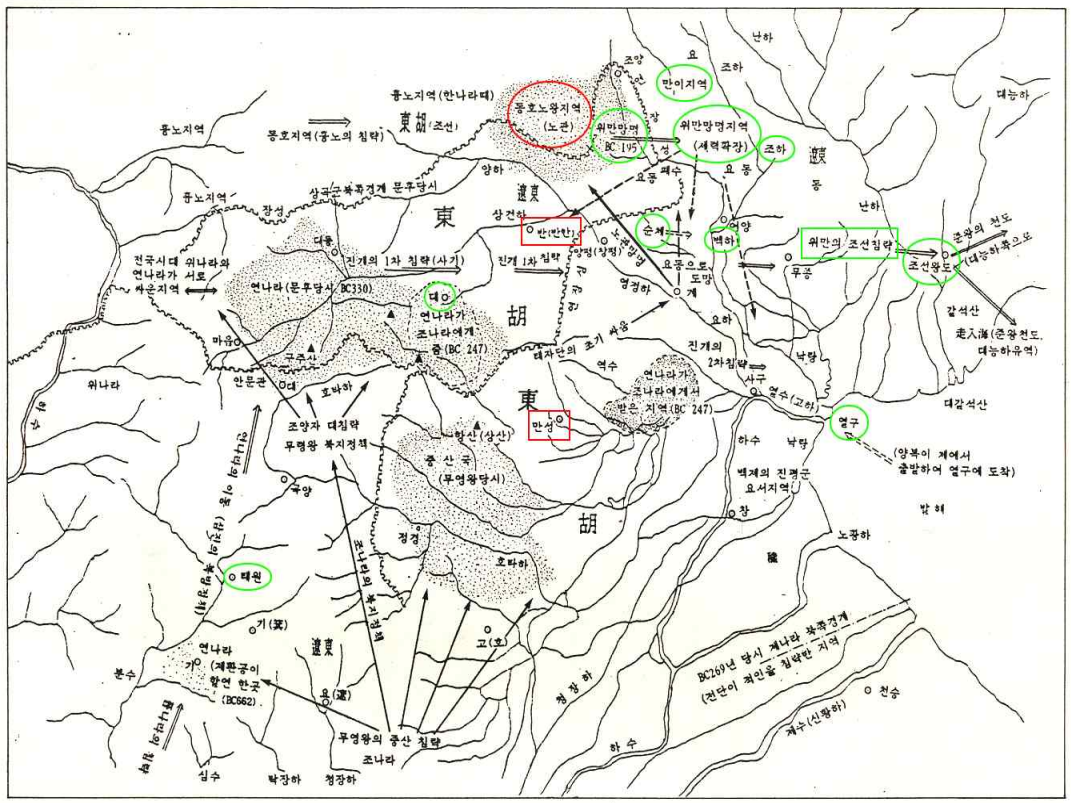
[색은]
지리지에 보면 낙랑에 '운장(雲鄣)'이 있다.

□ 상하운장의 위치

- 라동현 說 상하장의 위치



[圖 5-3] 史記의 朝鮮과 衛滿朝鮮의 이동



[圖 4-2] 遼東을 中心으로 한 朝鮮과 燕

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都王險徐廣曰昌黎有險瀆縣也韋昭云古邑名應劭注地理志云遼東有險瀆縣朝鮮王舊都瓚云王險城在樂浪郡浿水之東也

[원문]

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 齊亡命者王之, 都王險.
초역속진번조선만이급고연, 제망명자왕지, 도왕험.

[集解] 徐廣曰 昌黎有險瀆縣也.
[집해] 서광왈 창려유험독현야.
[索隱] 韋昭云 古邑名. 徐廣曰 昌黎有險瀆縣. 應昭注 地理志 遼東險瀆縣, 朝鮮王舊都. 臣瓚云 王險城在樂浪郡浿水之東也.
[색은] 위소운 고읍명. 서광왈 창려유험독현. 응소주 지리지 요동험독현, 조선왕구도. 신찬운 왕험성재락랑군패수지동야.

[해설]

차츰 '진번조선'에 복속하게 되었으며, 만이(蠻夷) 및 연·제나라의 망명자들의 왕이 되어 '왕검'에 도읍을 하였다.

[집해]
서광이 말하기를, '창려(昌黎)에 험독현(險瀆縣)이 있다.'고 하였다.

○ "창려(昌黎) = 험독(險瀆縣) = 왕험성(王險城)"이라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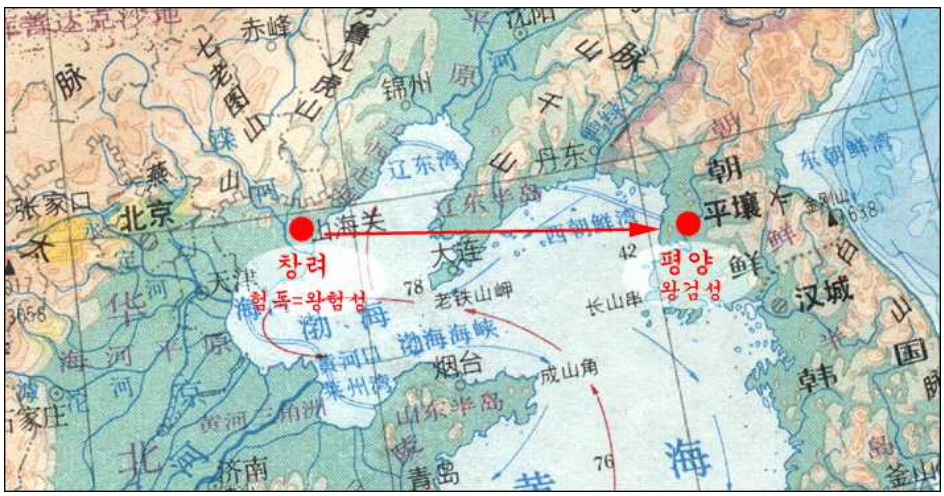
[색은]
위소가 이르길 '험독은 (위만조선의) 옛 도읍 이름이다'. 서광이 말하길 '창려에 험독현이 있다'고 하였으며, 응소는 지리지의 주(注)에서 '요동의 험독현은 조선왕의 옛 도읍이다'라 하였고, 신찬은 '왕험성은 낙랑군(樂浪郡) 패수(浿水)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 위치로 보면 '낙랑군, 패수' 동쪽에 → '창려, 험독현, 위만조선의 수도 왕험성' 이다.
○ 패수(浿水) : 하북성 조하(潮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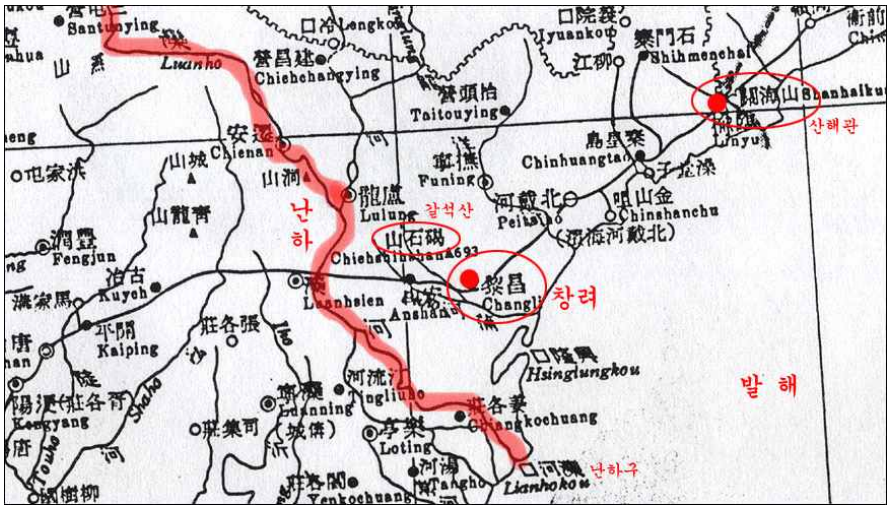
□ 지도설명

1. 왕검성은 하북성 창려

- (위만)조선의 수도 왕검성은 하북성 창려(昌黎)인데 일본학자들이 반도사관 주입을 위해 동쪽으로 1,200km 이상을 이동시켜 한반도 평양이 왕검성이라 조작하였다.



2. 하북성 창려의 세부위치



- 중국 하북성 난하 우측에 '창려(昌黎)'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이 단군조선 삼한 중 번조선 왕 위만(후대 손자인 우거까지 이어짐)이 통치하던 번한의 수도가 있던 '왕검성'이다.

- 중요지명으로는 '창려'와 '산해관'이 있으며 유명한 '갈석산'있고 중요강인 '난하'가 흐르고 있는 지역이다.

3. 한서지리지 : 험독 = 하북성 '창려'

漢書 卷二十八下 地理志第八下
한서 권이십팔하 지리지제팔하
요동군(遼東郡)편에 나오는 험독(險瀆)에 대한 설명부분

應劭曰 朝鮮王滿都也 依水險 故曰 險瀆
응소왈 조선왕만도야 의수험 고왈 험독
臣瓚曰 王險城在樂浪郡浿水之東 此自是險瀆也
신찬왈 왕험성재악랑군패수지동 차자시험독야
師古曰 瓚說是也 浿音普大反
사고왈 찬설시야 패음보대반

응소가 이르기를 '(험독)은 조선왕 (위)만의 도읍지이다. 물이 험한 지역에 의지해 살기 때문에 험독이라 한다.'
신찬이 이르기를 '왕험성은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다. 이곳은 이로 인하여(또는 이 때부터) 험독이다.'

사고가 이르기를, '(신)찬이 말한 곳이 이 곳이다. 패(浿)의 음은 '배(보대반普大反)'이다.'

○ 보충설명 : 현재 지나 발음으로 보대(普大)는 '푸따, 푸다이'인데 이것을 반절음으로 읽으면 '파, 파다이, 패'가 된다.

□ 패수(浿水) : 하북성 조하(潮河)

- (정본)한단고기에는 '패수'가 현재 하북성 '조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己亥三十八年燕盧綰復修遼東故塞東限浿水浿水今潮河也

己亥38年
기해38년

燕盧綰復修遼東故塞東限浿水 浿水今潮河也.
연노관복수료동고새동한패수 패수금조하야.

기해 38년(B.C 202년)
연나라 노관이 요동의 옛 요새를 다시 수리하고 패수를 동쪽의 경계로 삼았다. 패수는 지금의 조하(潮河)이다.

고 임승국 번역본에는 패수는 지금의 난하(灤河)라고 되어 있으나 한뿌리출판사에서 출간한 '정본 한단고기'에는 조하(潮河)라 기록되어 있다. 위 '정본한단고기'는 단단학회 소장본으로 최근 공개된 진본이다.

조하의 위치는 북경 상류에 있는 강이다. '습수=열수=영정하'. '패수=조하'. '백하'와 '조하'가 합류하여 발해만으로 빠지는 강이 '조백신하'이다.

4. 번조선 왕 기준의 손자 우거왕이 주변국들이 한무제에게 조공하는 것을 금지시키다.

會孝惠高后時天下初定遼東
太守卽約滿爲外臣保塞外蠻夷無使盜邊諸蠻夷君長欲入見天子勿得禁
止以聞上許之以故滿得兵威財物侵降其旁小邑眞番臨屯皆來服屬
東夷
小國後以爲郡

[원문]

會孝惠, 高后時天下初定. 遼東太守卽約滿爲外臣,
회효혜, 고후시천하초정. 요동태수즉약만위외신,
保塞外蠻夷, 無使盜邊.
보색외만이, 무사도변
諸蠻夷君長欲入見天子, 勿得禁止, 以聞, 上許之.
제만이군장욕입견천자, 물득금지, 이문, 상허지.
以故滿得兵威財物侵降其旁小邑, 眞番 臨屯 皆來服屬,
이고만득병위재물침강기방소읍, 진번 임둔 개래복속,
[索隱] 東夷小國, 後以爲郡.
[색은] 동이소국, 후이위군.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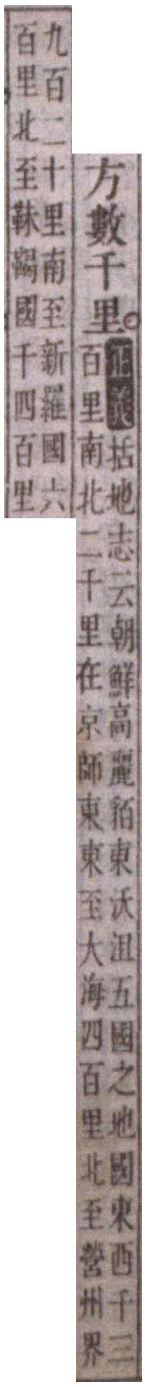
효혜(孝惠)·고후(高后)때에 이르러 천하가 비로소 안정이 되니, 요동태수가 '만(滿:위만)'을 외신(外臣)으로 삼기로 약속하고, 요새 밖의 '만이(蠻夷)'들의 침략으로 부터 보호하였다.

○ 혜제(惠帝) : B.C. 195~188, 한(漢) 고조(高祖:B.C. 206～195)의 아들
○ 고후(高后) : B.C. 188~180, 고조의 어머니, 혜제(惠帝)가 23세의 나이로 죽자 섭정함

여러 '만이'의 군장(君長)들이 한나라에 들어와 '천자'를 만나고자 함을 금지시키지 말도록 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상이 허락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만'이 병사와 재물을 얻어, 그곳의 작은 읍(邑)들을 침략하여 항복받으니, '진번'·'임둔' 등을 모두 복속하여(지방이 수천 리가 되었다.)

[색은] ('진번'·'임둔') 동이의 작은 나라로, 후에 '군(郡)'이 되었다.

○ 진번, 임둔은 이미 한나라와 우거왕 전쟁 전에 있었던 명칭이며 동이(東夷)의 나라이고 왕검성 서쪽에 있었음은 자명하다.


方數千里。正義括地志云朝鮮高麗貊東沃沮五國之地國東西千二百里南北二千里在京師東東至大海四百里北至營州界九百二十里南至新羅國六百里北至靺鞨國千四百里

[원문]

方數千里.
방수천리.

[正義]
括地志云 朝鮮高麗貊東沃沮五國之地,
괄지지운 조선고려맥동옥저오국지지,
國東西千二百里, 南北二千里, 在京師東,
국동서천이백리, 남북이천리, 재경사동,
東至大海四百里, 北至營州界九百二十里,
동지대해사백리, 북지영주계구백이십리,
南至新羅國六百里, 北至靺鞨國千四百里.
남지신라국육백리, 북지말갈국천사백리.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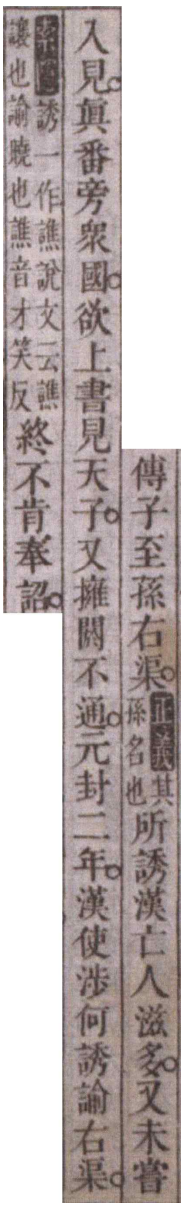
('진번'·'임둔' 등을 모두 복속하여) 지방이 수천리나 되었다.

[정의]

괄지지(括地志)에 이르길, "조선, 고려, 맥, 동옥저 등 다섯 나라의 땅이다. 그 나라는 동서 1300리, 남북 2000리이며, 경사(京師)의 동쪽에 있다. 동으로 400리에 대해(大海)가 있고, 북으로 '영주'에 이르러 920리가 경계이며, 남으로 '신라국' 600리, 북으로 '말갈국' 1400리이다."라고 하였다.

○ 번조선 왕 기준의 자리를 찬탈한 위만이 세력을 넓혀 수천리가 되는 땅을 복속하였다는 의미

5. 한무제가 사신 섭하를 파견하고 우거왕을 회유하였으나 거절하다. 섭하가 조선비왕 장을 죽이고 돌아가니 왕이 군사를 보내 섭하를 죽였다.


傳子至孫右渠正義其孫名也所誘漢亡人滋多又未嘗入見眞番旁衆國欲上書見天子又擁閼不通元封二年漢使涉何誘諭右渠誘一作譙說文云譙讓也諭曉也譙音才笑反終不肯奉詔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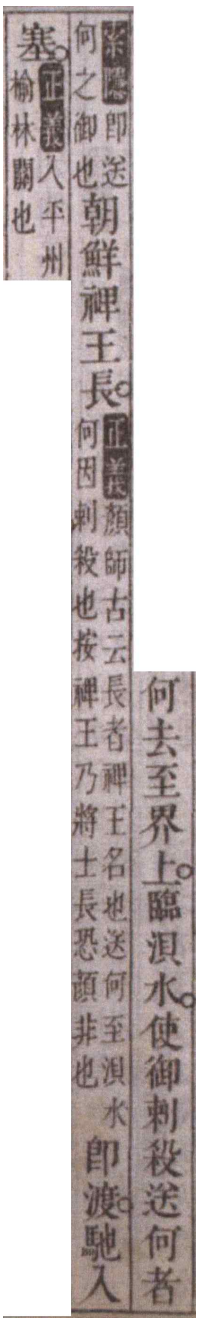
傳子至孫右渠
전자지손우거
[正義] 其孫名也.
[정의] 기손명야.
所誘漢亡人滋多, 又未嘗入見, 眞番旁衆國欲上書見天子, 又擁閼不通.
소유한망인자다, 우미상입견, 진번방중국욕상서견천자, 우옹알부통.
元封二年, 漢使涉何誘諭右渠
원봉이년, 한사섭하유유우거
[索隱] 誘一譙說作文云, 譙讓也. 諭曉也. 譙音才笑反
[색은] 유일초설작문운, 초양야. 유효야. 초음재소반
終不肯奉詔.
종부긍봉조.

[해설]

전하여 손자 '우거'에 이르러,
[정의] 그(위만) 손자의 이름이다.

한나라의 망명자들을 회유한 바 그 숫자는 많이 불어났다. (우거왕이)천자에게 입견(入見)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진번(眞番)'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 천자를 알현하고자 하는 것 또한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원봉 2년(B.C. 108년) 한나라 사신 '섭하(涉何)'가 '우거(右渠)'를 회유하고 그러지 말라고 알렸으나 끝내 (우거왕이)말을 듣지 않았다.

[색은] 설문에, '초'는 꾸짖다, 유(諭)는 '권유하다'는 의미라 했다. 초(譙)의 음은 '조(재소반才笑反)'이다.


何去至界上。臨浿水。使御刺殺送何者
索隱即送何之御也朝鮮裨王長。正義顏師古云長者裨王名也送何至浿水何因刺殺也按裨王乃將士長恐顏非也即渡馳入塞。正義入平州榆林關也

[원문]

何去至界上, 臨浿水, 使御刺殺送何者
하거지계상, 임패수, 사어자살송하자
[索隱] 卽送何之御也.
[색은] 즉송하지어야.
朝鮮裨王長,
조선비왕장,
[正義]
顔師古云 長者, 裨王名也.
안사고운 장자, 비왕명야.
送何至浿水, 何因刺殺也. 按 裨王及將士長, 恐顔非也.
송하지패수, 하인자살야. 안 비왕급장사장, 공안비야.

卽渡, 馳入塞,
즉도, 치입새,
[正義] 入平州榆林關也.
[정의] 입평주유림관야.

[해설]

섭하가 국경 지역으로 가는 길에 '패수'에 다다르자, (섭하가)길잡이를 시켜 배웅을 나온 '조선비왕(朝鮮裨王)' '장(長)'을 찔러 죽이고

[색은] 즉 (섭하를) 따라온 길잡이이다.

'조선비왕' '장(長)'

[정의] 안사고는, '장(長)'은 비왕의 이름이며, 섭하를 보내러 패수까지 나왔다가 칼에 찔려 죽었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비왕은 장사(將士)인 '장'을 말하는 것으로 안사고가 말한 것이 그른 것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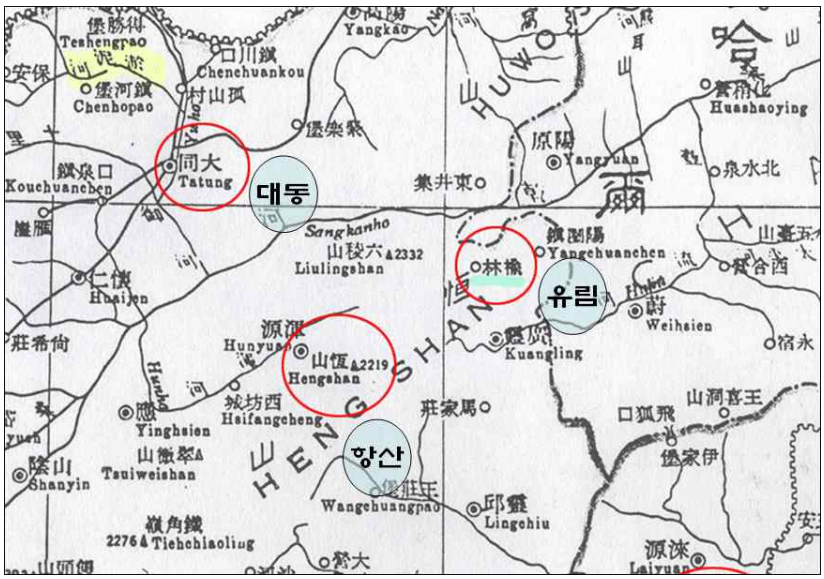
바로 패수를 건너서 말을 달려 요새로 들어가,

[정의] 요새로 들어간 곳이 평주 유림관이다.

○ 평주유림관(平州榆林關) : 산서성 유림

□ 평주 유림관(平州 楡林關)

- 평주 유림관(楡林關)은 산서성 대동시 서남 '항산(恒山)' 인근에 있다.



遂歸報天子曰殺朝鮮將上爲其名美卽不詰索隱有殺將之美名拜何爲遼東東部都尉正義地理志云遼東郡武次縣東部都尉所理也

[원문]

遂歸報天子曰 殺朝鮮將. 上爲其名美, 卽不詰,
수귀보천자왈 살조선장. 상위기명미, 즉부힐,

[索隱] 有殺將之美名.
[색은] 유살장지미명.

拜何爲遼東東部都尉.
배하위료동동부도위.

[正義] 地理志云 遼東郡武次縣, 東部都尉所理也.
[정의] 지리지운 료동군무차현, 동부도위소리야.

[해설]

마침내 왕(한무제)에게, '조선의 장수를 죽였다'고 보고하니, 왕이 그 명예를 부추겨 힐책하지 않고,

[색은] 살해한 장수의 이름이 있다.

섭하를 '요동 동부도위(遼東東部都尉)'에 임명하였다.

[정의]
지리지에 이르기를, '요동군 무차현(武次縣)은 동부도위(東部都尉)가 다스리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 **동부도위(東部都尉)가 다스린 요동군 무차현(武次縣)은 산서성**

- 동부도위 섭하가 다스린 무차는 산서성 안문지역(장성 끝부분)으로 보인다.

- 섭하가 도망간 곳이 산서성 '유림' 지역이니 이 지역을 벗어날수 없으며, "무(武)"관련 지명이 이곳에 많은 것도 이 지역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6. 한무제가 수륙양군으로 우거왕을 공격하였으나 패하다.

罪人擊朝鮮。

[원문]

朝鮮怨何, 發兵襲攻殺何.
조선원하, 발병습공살하.
天子募罪人擊朝鮮.
천자모죄인격조선.

[해설]

조선(우거왕 번조선)에서 섭하를 원망하여 군사를 일으켜 섭하를 공격하여 죽였다.

천자(한무제)는 죄인들을 모집하여 조선을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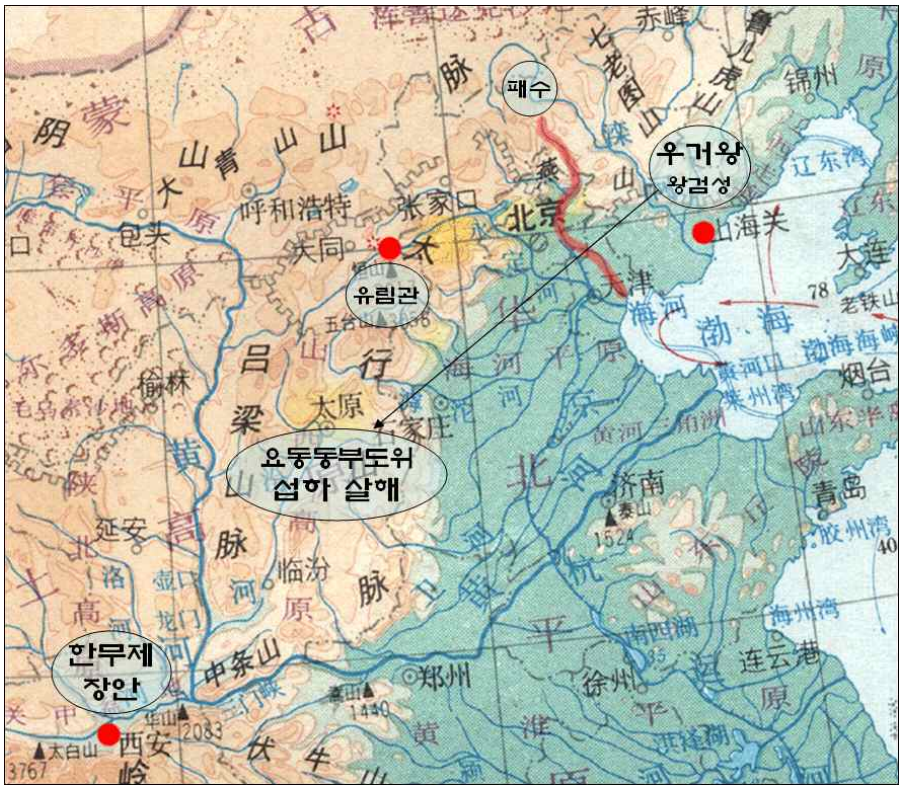
朝鮮怨何。發兵襲攻殺何。天子募

○ 한나라 전력 = 우거왕 전력

하북성 창려에 있던 번(위만)조선 우거왕이 군사에 명을 내려 섭하를 죽이라 하니, 패수(하북성 조하)를 건너 상간하를 따라 산서성 무차지역에 있었던 한나라의 동부도위 섭하를 살해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번(위만)조선의 우거왕 전력이 결코 한무제에 뒤지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다.

□ 당시 상황도



其秋遣樓船將軍楊僕從齊浮渤海兵五萬人左將軍荀彘出遼東討右渠右渠發兵距險

[원문]

其秋,
기추,
遣樓船將軍楊僕從齊浮渤海 兵五萬人,
견루선장군양복종제부발해 병오만인,
左將軍荀彘 出遼東 討右渠.
좌장군순체 출료동 토우거.
右渠發兵距險.
우거발병거험.

[해설]

그해(B.C. 108년) 가을, 누선장군(樓船將軍) '양복(楊僕)'을 보내어 '제(齊)'에서 '발해(渤海)'를 건너가게 하니 병사가 오만이었다.
좌장군(左將軍) '순체(荀彘)'는 요동(遼東)을 출발하여 '우거(右渠)'를 치게 하였다. '우거(右渠)'가 병사를 일으켜 험준한 곳에서 대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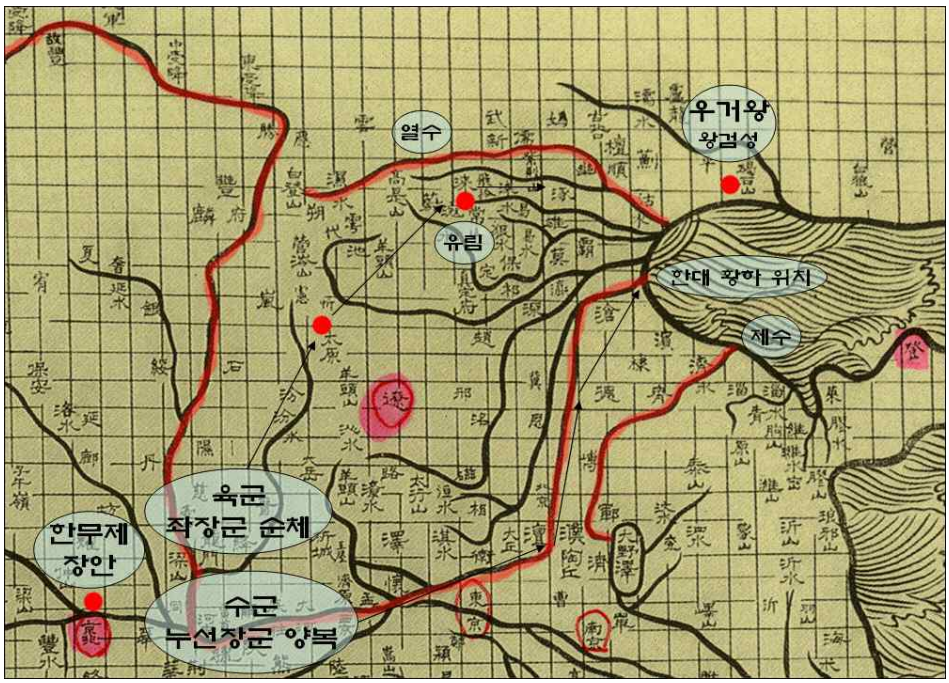
○ **공격로 분석** : 한무제가 수군과 육군을 보내다.

- 수군 : 누선장군(樓船將軍) '양복(楊僕)'에게 병사 5만을 주어 황하를 타고 공격하게 하였다는 말이다.
  ☞ B.C. 602년 ~ A.D. 11년 황하 물줄기는 천진하구로 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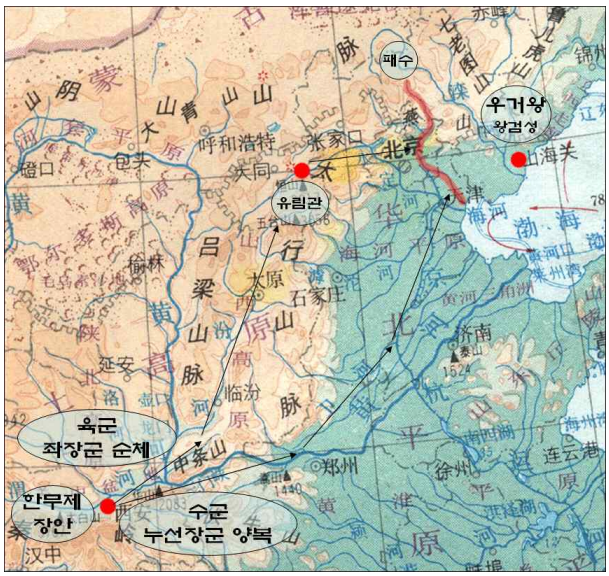
- 육군 : 좌장군(左將軍)'순체(荀彘)'를 산서성 상건하를 타고 북경 북쪽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 당시 상황도

1. 송나라 고지도인 우적도상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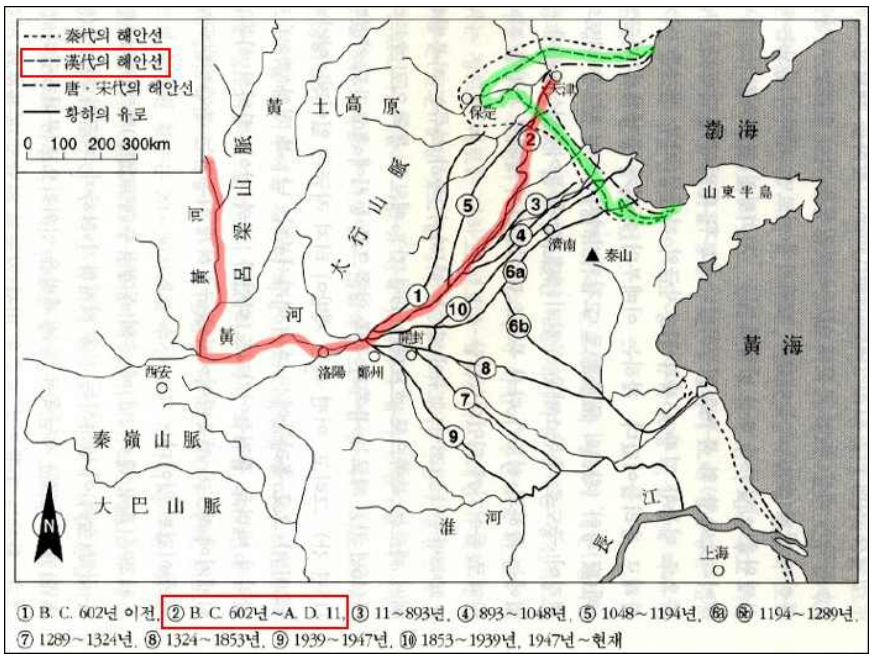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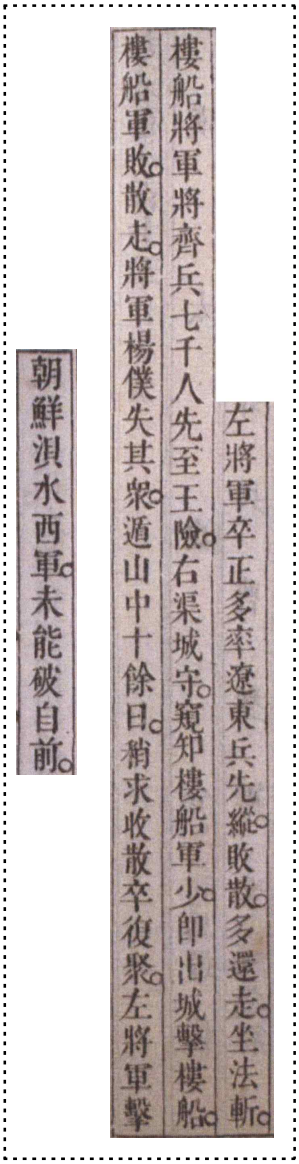
2. 현재 지도상 표시



3. B.C602년 ~ AD11년 황하 물줄기

4. 황하 물줄기 변천사




左將軍卒正多率遼東兵先縱敗散多還走坐法斬
樓船將軍將齊兵七千人先至王險右渠城守窺知樓船軍少即出城擊樓船
樓船軍敗散走將軍楊僕失其衆遁山中十餘日稍求收散卒復聚左將軍擊
朝鮮浿水西軍未能破自前

[원문]

左將軍卒正多率遼東兵先縱, 敗散, 多還走, 坐法斬.
좌장군졸정다솔료동병선종, 패산, 다환주, 좌법참.
樓船將軍將齊兵七千人 先至王險.
루선장군장제병칠천인 선지왕험.
右渠城守, 窺知樓船軍少, 卽出城擊樓船, 樓船軍敗散走.
우거성수, 규지루선군소, 즉출성격루선, 루선군패산주.
將軍楊僕失其衆, 遁山中十餘日, 稍求收散卒, 復聚.
장군양복실기중, 둔산중십여일, 초구수산졸, 복취.
左將軍擊朝鮮浿水西軍, 未能破自前.
좌장군격조선패수서군, 미능파자전.

[해설]

좌장군(左將軍) 졸정(卒正) 다(多)를 요동(산서성 일대)의 병사를 거느리고 먼저 출전하였으나, 패하여 흩어지고 다(多)는 돌아와 달아나니 법에 따라 참수했다.

○ 졸정(卒正) 다(多) : 졸정(卒正)은 관직이고 다(多)는 이름이다.

누선장군은 제나라 군사 7천명을 이끌고 왕험성(하북성 창려)에 먼저 도착하니, '우거(右渠)'가 성을 지키고 있다가 누선장군의 규모가 작음을 정탐하여 알고, 곧바로 성을 나와 누선을 공격하니 누선군이 패하고 흩어져 달아났다. 장군 '양복(楊僕)'은 그의 군사를 잃고 산속에서 10여일을 숨어 있다가 점차 흩어진 군사를 거두서 다시 모이게 했다.

좌장군이 조선 패수의 서쪽에 있는 군사(浿水西軍, 하북성 조백하)를 공격하였으나, 능히 격파하지 못하여 나아가지 못했다.

□ 당시 상황도

패수
육군 좌장군 졸정다
선공하다 패전하여
참수 당함
우거왕
왕검성
패수서군
황하
수군 누선장군 양복
7천명 공격.패전
산속에서 10여일간 헤맴
北京
天津
山海关
辽东湾
大连
锦州
太原
石家庄
大同
浩特
恒山
2017
五台山
3058
老铁山岬
山东半岛
黄河三角洲

7. 한무제가 사신 위산을 보내어 회유하나 실패하다.

右渠見使者頓首謝願降恐兩將詐殺臣今見信節請服降
天子爲兩將未有利乃使衛山因兵威往諭右渠

[원문]

天子爲兩將未有利,
천자위양장미유리,
乃使衛山因兵威往諭右渠.
내사위산인병위왕유우거.

右渠見使者頓首謝 願降,
우거견사자돈수사 원항,
恐兩將詐殺臣 今見信節, 請服降.
공양장사살신 금견신절, 청복항.

[해설]

천자(한무제)가 두 장군의 전세가 유리하지 않다고 하여 '위산(衛山)'으로 하여금 군대의 위엄을 보이고 우거에게 가서 회유하도록 하였다.

'우거(右渠)'가 사신(使者)을 보자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기를, "항복하고자 원하였으나 두 명의 장군이 신을 속여 죽이는 것이 두려웠었는데, 이제 믿음의 징표(信節)를 보니 항복을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사마천이 서토입장에서 기록한 것)

遣太子入謝獻馬五千匹及饋軍糧人衆萬餘持兵方渡浿水使者及左將軍疑其爲變謂太子已服降宜命人毋持兵太子亦疑使者左將軍詐殺之遂不渡浿水復引歸山還報天子天子誅山

[원문]

遣太子入謝, 獻馬五千匹, 及饋軍糧.
견태자입사, 헌마오천필, 급궤군량.
人衆萬餘, 持兵, 方渡浿水, 使者及左將軍疑其爲變,
인중만여, 지병, 방도패수, 사자급좌장군의기위변,
謂太子已服降, 宜命人毋持兵.
위태자이복강, 의명인무지병.
太子亦疑使者左將軍詐殺之, 遂不渡浿水, 復引歸.
태자역의사자좌장군사살지, 수부도패수, 부인귀.
山還報天子, 天子誅山.
산환보천자, 천자주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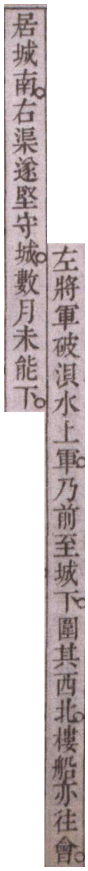
[해설]

(우거왕이)태자를 보내어 (漢나라 장안에)들어가 (한무제에게)사죄하게 하고, 말 5천필과 군량미를 바치고자 하였다.

백성 1만여 명이 무기를 지닌 채 바야흐로 패수(하북성 조백하)를 건너려 하니, 사신과 좌장군이 그들이 변을 일으킬까 의심하여 말하기를, '태자는 이미 항복하였으니 마땅히 무리들에게 명하여 무기를 지니지 말도록 하시오.' 라고 하였다.

태자 역시 사신과 좌장군이 자기를 속여 죽이지 않을까 의심하여, 마침내 패수를 건너지 않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되돌아왔다.

'위산'이 돌아와 천자에게 보고하니 천자(한무제)가 위산을 주살하였다.



[원문]

左將軍破浿水上軍, 乃前, 至城下, 圍其西北.
좌장군파패수상군, 내전, 지성하, 위기서북.
樓船亦往會, 居城南.
루선역왕회, 거성남.
右渠遂堅守城, 數月未能下.
우거수견수성, 수월미능하.

[해설]

좌장군이 '패수상군(浿水上軍:조백하상류) '을 격파하고 앞으로 나아가 성 아래(왕검성, 하북성 창려)에 이르러 그 서북쪽(육군)을 포위하니, 누선도 또한 가서 성의 남쪽(수군)을 점거하였다.

우거(右渠)가 마침내 성을 굳게 지키니, 여러 달 동안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 패수서군, 패수상군 : 하북성 조하(조백하)
- 패수서군 : 패수(조백하)의 서쪽을 지키는 군대.
- 패수상군은 패수(조백하)의 윗쪽(상류부분)을 지키는 군대라는 의미.

8. 수륙양군에 내분이 일어 왕검성 함락에 실패하다.

左將軍素侍中幸將燕代卒悍乘勝軍多驕樓船將齊卒入海固已多敗亡其先與右渠戰困辱亡卒卒皆恐將心慙其圍右渠常持和節

[원문]

左將軍素侍中, 幸, 將燕代卒, 悍, 乘勝, 軍多驕.
좌장군소시중, 행, 장연대졸, 한, 승승, 군다교.
樓船將齊卒, 入海, 固已多敗亡.
루선장제졸, 입해, 고이다패망.
其先與右渠戰, 困辱亡卒, 卒皆恐, 將心慙,
기선여우거전, 곤욕망졸, 졸개공, 장심참,
其圍右渠, 常持和節.
기위우거, 상지화절.

[해설]

좌장군은 본래 시중(侍中)으로 천자를 받든 적이 있으며 '연(燕)'과 '대(代)'의 군사를 거느렸는데 군사들이 사나워 승리의 기세를 타고 군사들이 매우 교만하였다.

○ '연(燕)'과 '대(代)' 지방 : 산서성 안문관 유역

누선은 '제(齊)'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해(海)로 들어갔으나, 사실 이미 여러 번 패하여 군사를 많이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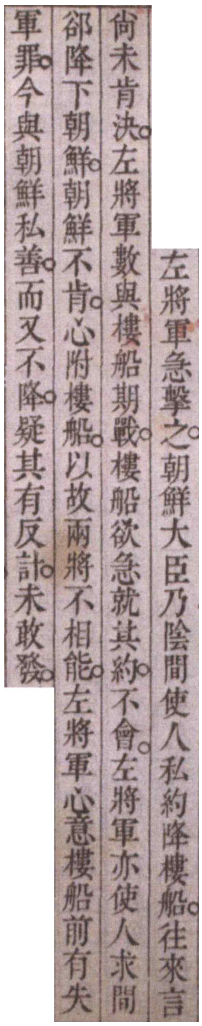
그 전에 '우거'와 싸워서 곤욕을 당하고 패하였던 군사들이라, 모두 공포에 질려있었다.

누선장군은 마음 속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여 '우거'를 포위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화친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 '연(燕)'과 '대(代)'지역 지도

- 대(代)는 산서성 안문 인근에 있는데 안문은 산서성에서 북방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중요관문이며 역사상 접경지역이라 전쟁이 끊이지 않은 지역이다.

- 전쟁이 많은 지역이니 병사들이 사나울 수밖에 없고 이 지역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다시금 패수강가에서 우거왕의 군사들과 싸워 이기니 교만해 졌다는 말이다.


左將軍急擊之朝鮮大臣乃陰間使人私約降樓船往來言
尙未肯決左將軍數與樓船期戰樓船欲急就其約不會左將軍亦使人求間
郤降下朝鮮朝鮮不肯心附樓船以故兩將不相能左將軍心意樓船前有失
軍罪今與朝鮮私善而又不降疑其有反計未敢發

[원문]

左將軍急擊之, 朝鮮大臣乃陰閒使人私約降樓船, 往來言, 尙未肯決.
좌장군급격지, 조선대신내음한사인사약강루선, 왕래언, 상미긍결.
左將軍數與樓船期戰, 樓船欲急就其約, 不會.
좌장군수여루선기전, 루선욕급취기약, 부회.
左將軍亦使人求閒 郤降下朝鮮, 朝鮮不肯, 心附樓船.
좌장군역사인구한 극강하조선, 조선부긍, 심부루선.
以故兩將不相能. 左將軍心意樓船前有失軍罪,
이고양장부상능. 좌장군심의루선전유실군죄,
今與朝鮮私善而又不降, 疑其有反計, 未敢發.
금여조선사선이우부강, 의기유반계, 미감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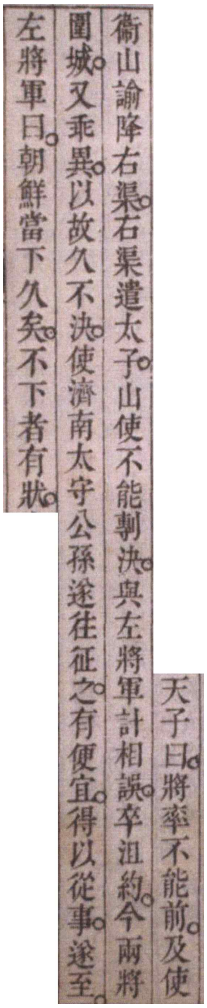
[해설]

좌장군이 급히 공격하니, '조선'의 대신이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누선에게 항복을 약속하였으나 말만 오고갈 뿐 아직 확실한 결정은 없었다. 좌장군이 수차례 누선과 함께 공격하고자 했으나, 누선은 (조선대신들과의) 그 약속을 급히 이루고자 하여 협공을 하지 못했다.(不會)

좌장군 역시 사람을 보내어 조선의 항복 시기를 알고자 하였으나, 조선은 듣지 않고 누선에게만 마음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두 장수는 서로 협력하지 못했다.

좌장군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누선이 지난번 군사를 잃은 죄가 있었고(有失軍罪) 지금은 조선과 사사로이 좋은 관계이며 또한 항복치 않게하니, 그 배반의 계획(反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으나 감히 드러내지는 못했다.

9. 제남태수 공손수를 사신으로 파견하여 수륙양군을 독려하였으나 실패하여 한무제가 공손수를 주살하다.


衛山諭降右渠右渠遣太子山使不能剸決與左將軍計相誤卒沮約今兩將圍城又乖異以故久不決使濟南太守公孫遂往征之有便宜得以從事遂至左將軍曰朝鮮當下久矣不下者有狀

天子曰將率不能前及使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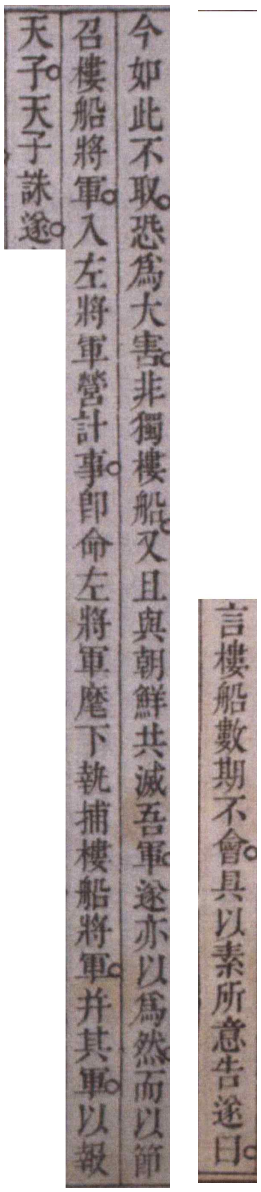
天子曰將率不能, 前及使衛山諭降右渠,
천자왈장솔부능, 전급사위산유강우거,
右渠遣太子, 山使不能剸決, 與左將軍計相誤, 卒沮約.
우거견태자, 산사부능전결, 여좌장군계상오, 졸저약.
今兩將圍城, 又乖異, 以故久不決.
금양장위성, 우괴이, 이고구부결.
使濟南太守公孫遂往征之, 有便宜得以從事.
사제남태수공손수왕정지, 유편의득이종사.
遂至, 左將軍曰 朝鮮當下久矣, 不下者有狀.
수지, 좌장군왈 조선당하구의, 부하자유상.

[해설]

천자가 말하기를, "장수와 병졸들이 능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위산(衛山)'을 보내어 '우거'에게 항복하도록 회유하기에 이르렀다. 우거가 태자를 보냈으나 위산은 능히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였고, 좌장군과 더불어 계획이 서로 어긋나서 마침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제 두 장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으나, 또다시 의견이 어긋남으로 인해 오래도록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제남태수(濟南太守)' '공손수(公孫遂)'를 보내어 그것을 바로잡도록 하니 상황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 마땅히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라고 하였다.

공손수가 도착하니, 좌장군이 말하기를, "지금 조선을 당연히 함락할 수 있게 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함락시키지 못한 것은 사정이 있다." 라고 하였다.

□ 제남태수(濟南太守) : 산동성 제남(濟南)


今如此不取。恐爲大害。非獨樓船。又且與朝鮮共滅吾軍。遂亦以爲然。而以節召樓船將軍。入左將軍營計事。卽命左將軍麾下執捕樓船將軍。并其軍。以報天子。天子誅遂。

言樓船數期不會。具以素所意告遂曰。

[원문]

言樓船數朝不會, 具以素所意告遂, 曰 今如此不取,
언루선수조부회, 구이소소의고수, 왈 금여차부취,
恐爲大害, 非獨樓船, 又且與朝鮮共滅吾軍.
공위대해, 비독루선, 우차여조선공멸오군.
遂亦以爲然, 而以節召樓船將軍入左將軍營計事,
수역이위연, 이이절소루선장군입좌장군영계사,
卽命左將軍麾下執捕樓船將軍, 幷其軍, 以報天子. 天子誅遂.
즉명좌장군휘하집포루선장군, 병기군, 이보천자. 천자주수.

[해설]

(좌장군이) 누선이 여러 차례 조선과 회합(전쟁)에 나오지 않고, 그로 인해 평소에 갖고 있던 뜻을 공손수에게 말하기를,

"이제 사정이 이렇게 되어 (누선장군을) 취하지 않으면 커다란 해가 될까 두렵다. 이는 누선 혼자의 일이 아니며 또한 조선과 더불어 우리 군대를 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손수 또한 그렇다고 하여, 부절(符節)로서 누선장군을 불러서 좌장군의 진영에서 계획을 세울 일이 있으니 들어오게 하였다.

그리고 곧 좌장군 휘하 병사에게 명하여 누선장군을 잡아서 체포하라 하고, 누선장군의 군사 역시 좌장군의 군사와 병합한 뒤 천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니, 천자가 공손수를 주살하였다.

○ 한 무제는 수륙양군이 힘을 모아 왕검성을 공격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오히려 분열만 가중한 꼴이니 그 죄를 물어 사신 "공손수"를 죽인 것으로 보인다.

□ “사기 조선열전”의 내용을 후대에 조작하다.

召樓船將軍入左將軍營計事即命左將軍麾下執捕樓船將軍并其軍以報天子天子誅遂

以報天子許遂左將軍已并兩軍即急擊朝鮮朝鮮相并其軍

사마천의 “사기 조선열전” 내용을 후대에 변경하여 조작하였다. 그래서 후대의 사서를 볼때는 반드시 그당시의 사서와 비교하여 해석에 잘못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단순 오기라고 하고 넘기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① 사마천 “사기 조선열전”에는

“天子誅遂”(천자주수) “천자가 공손수를 주살하였다” 라고 되어있는데

② 흠정사고전서에는

“天子許遂”(천자허수) “천자가 공손수의 조치를 윤허하였다” 라고 하여 글자를 임의변경 조작하였다.

○ 사고전서 : 중국 청(淸)나라 건륭제(乾隆帝)의 직접지시(欽定)로 1772년부터 10년 동안 각종 사서를 모아 집대성한 것으로 7만 8731권이다.

10. 우거왕의 신하 4명이 한나라에 항복하다.

[원문]

左將軍已幷兩軍, 卽急擊朝鮮. 朝鮮 相路人 相韓陰
좌장군이병양군, 즉급격조선. 조선 상로인 상한음
尼谿相參 將軍王唊 相與謀曰 始欲降樓船, 樓船今執,
니계상참 장군왕겹 상여모왈 시욕강루선, 루선금집,
獨左將軍幷將, 戰益急, 恐不能與, 戰王又不肯降.
독좌장군병장, 전익급, 공부능여, 전왕우부긍강.
陰陝路人皆亡降漢. 路人道死.
음합로인개망강한. 로인도사.

[集解]
駰案 漢書音義曰 凡五人也. 戎狄不知官紀, 故皆稱相. 唊音頰.
인안 한서음의왈 범오인야. 융적불지관기, 고개칭상. 겹음협.

[索隱]
路人, 漁陽縣人. 如淳云 相, 其國相. 路人, 名也. 唊一音協.
로인, 어양현인. 여순운 상, 기국상. 로인, 명야. 겹일음협.

[해설]

좌장군이 이미 양쪽 군사를 병합하여 조선을 급히 공격하니, 조선의 재상 로인(路人), 재상 한음(韓陰), 이계상 삼(參), 장군 왕겹(王唊:왕협王頰) 등이 서로 모의하여 말하기를,
"처음 누선에게 항복하고자 했으나, 지금은 누선이 붙잡혀있고, 좌장군이 홀로 군을 지휘하니, 전세가 점점 급해지므로 더불어 전쟁을 능히 대항치 못할까 두렵고, 왕께서도 항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고, 한음, 왕겹, 로인 등이 모두 도망하여 한나라에 항복했으며, 로인은 도중에 죽었다.

[집해]

한서 음의에 이르기를, “상(相)은 무릇 다섯 사람이다. 융적(戎狄)은 관직의 법도를 알지 못해 모두 상(相)이라 한다."라고 했다. 겹(唊)의 음은 협(頰)이다.

[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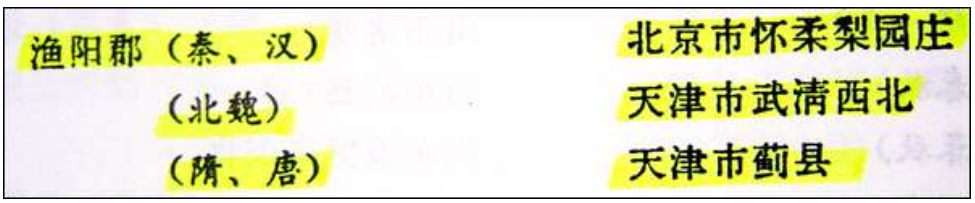
"로인(路人)은 어양현(漁陽縣)사람이다."라고 하였고, 여순(如淳)이 이르기를, "상(相)은 그 나라 재상이며, ’로인’은 사람 이름이다. ’겹’은 ‘협(協)’으로도 발음한다."라고 하였다.

□ **우거왕을 배반하고 한나라에 항복한 (번)조선의 역적들**

성 명	직 위	비 고
로인(路人)	조선 상(相)	어양현(漁陽縣), 즉 하북성 회유(懷柔) 사람 → 도망가다가 죽음
한음(韓陰)	조선 상(相)	
이계상 삼(尼谿相 參)	조선 상(相)	우거왕 시해한 장본인
장군 왕겹(將軍 王唊)	조선 장군(將軍)	겹(唊)의 음은 협(頰)

○ 어양(漁陽)의 위치 : 진(秦)·한(漢)시절 하북성 북경북쪽 회유(懷柔) 지역

- 중국 북경대학교재 “고금지명비교표”상의 “어양”



- 결국 로인(路人)은 조선사람인데 어양 사람이라 하였으니 지금의 북경유역이 조선땅이었다는 증빙이 되는 셈이다.

○ 지도상 어양(漁陽)의 위치 : 하북성 북경 북쪽 회유(懷柔) 지역

11. 우거왕의 신하 이계상 삼이 왕을 시해하고 항복하다.

[원문]

元封三年夏, 尼谿相參 乃使人殺朝鮮王右渠來降.
원봉삼년하, 니계상삼 내사인살조선왕우거래강.
王險城未下, 故右渠之大臣成已又反, 復攻吏.
왕험성미하, 고우거지대신성이우반, 부공리.
左將軍使右渠子長降相路人之子最
좌장군사우거자장강상로인지자최
告諭其民, 誅成已, 以故遂定朝鮮, 爲四郡.
고유기민, 주성이, 이고수정조선, 위사군.
[集解]
徐廣曰 表云 長路. 漢書 表云 長, 咯音各.
서광왈 표운 장로. 한서 표운 장, 각음각.
[索隱] 咯音姑落反.(각음고락반)
[索隱] 最名 路人子也.(최명 로인자야)
[集解] 眞番, 臨屯, 樂浪, 玄菟也.
진번, 임둔, 락랑, 현토야.

[해설]

원봉3년(B.C. 108년) 여름, 니계상 삼(尼谿相參)이 사람을 시켜 조선왕 우거(右渠)를 죽이고 와서 항복하였다. 그러나 왕험성은 함락되지 않은 까닭으로 우거의 대신(大臣)인 성기(成己)가 또한 반기를 들고 다시 관리들을 공격하였다.

좌장군이 우거의 아들 장(長)과 항복한 상 로인의 아들 최(最)를 시켜 그 백성들을 달래게 하고 성기(成己)를 죽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마침내 조선을 정벌하여 사군(四郡)을 삼았다.

[집해]
서광이 이르기를, "표(表)에 장각(長洛)이라 하였다. 한서의 표에 이르기를, 장각(長洛)이라 했는데 각의 음은 각(各)이다"라고 하였다.

[색은] 각의 음은 '각(고락반姑落反)'이라 하였다.
[색은] "최(崔)는 로인(路人)의 아들이다."라고 하였다.

[집해] "진번(眞番), 임둔(臨屯), 낙랑(樂浪), 현도(玄菟)이다."라 했다.

○ 진번(眞番)·임둔(臨屯)은 고대로부터 동이(東夷) 땅

- 조선열전 앞부분에서 이미 위만이 동이땅 진번(眞番)·임둔(臨屯)을 복속하였다는 기록을 소개하였고, "진번(眞番)·임둔(臨屯)은 동이의 작은 나라로, 후에 군(郡)이 되었다." 라는 설명이 있었다.

- 진번, 임둔은 이미 한나라와 우거왕 전쟁전에 있었던 명칭이며 동이(東夷)의 나라이고 왕검성 서쪽에 있었음은 자명하다.

- 이것을 한반도에 비정한 기존 사학계의 역사조작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어떻게 거짓이 교육될 수 있는가 ?

○ 사군(四郡)

- 한사군의 기록, 즉 진번(眞番), 임둔(臨屯), 낙랑(樂浪), 현도(玄菟)라는 기록은 사마천의 사기에는 나오지 않는다. 후대에 송나라 때(420 - 479) 배인(裴駰)이 추가로 보충 설명한 집해에 나오는 내용이다.

- 어찌 당대에 기록되지 않은 사군을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전쟁의 공과를 인정하여 봉지를 준 위치가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이었으며 그 지역은 다섯 군데이다. 한사군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 우거왕을 시해하고 한나라에 항복한 조선의 역적들

이 름	직 위	비 고
이계상 삼(尼谿相 參)	조선 상(相)	우거왕을 시해한 역적
장(長)	우거왕의 아들(태자)	좌장군 순체의 회유에 넘어가 왕검성 백성을 회유한 역적
최(最)	로인(路人)의 아들	〃

- 니계상 삼(尼谿相參)이 왕검성 내에서 자객을 보내 우거왕을 시해하고 한나라에 항복하였음에도 대신(大臣)인 성기(成己)가 끝까지 저항하여 왕검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 한나라의 육군 장수인 좌장군 순체가 우거의 아들 즉, 태자 장(長)과 역적 로인의 아들 최(最)를 시켜 충신 성기(成己)를 죽이고 백성들을 회유하여 전투없이 왕검성을 들어 한나라에 항복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 우거왕의 태자 '장(長)'을 전면에 내세워 한나라 무력으로 안되니 전술을 회유정책으로 바꾸어 스스로 항복을 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 비유를 들자면 우리의 미군정 시절 처럼 역적 '장'과 '최' 등에게 권력을 약속하고 전쟁이 없는 종전을 시도한 것이다.

- 이후 조선사람 5인이 나누어 통치한 다섯곳의 봉지는 한나라의 중앙통제는 받았지만 그 땅의 백성은 여전히 조선사람이었고 통치도 역시 역적질을 한 조선사람이 하였다.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었다는 말인가?

12. 우거왕을 배반한 역적 5명에게 봉지를 두어 다스리게하다.

[원문]

封參爲澅淸侯,
봉참위홰청후,
[集解] 韋昭曰 屬齊.
[집해] 위소왈 속제.
[索隱] 顧氏澅音獲.
[색은] 고씨홰음획.
陰爲萩苴侯,
음위추저후,
[集解] 韋昭曰 屬渤海.
[집해] 위소왈 속발해.
[索隱] 萩音秋, 苴音子餘反.
[색은] 추음추, 저음자여반.

[해설]

(이계상)삼(參)을 봉하여 홰(획)청후(澅淸侯)로 삼고

[집해] 위소가 이르기를, "(획청은) 제(齊)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색은] 고씨는 "홰(澅)의 음은 획(獲)"이라 했다.

(한)음(陰)을 추저후(萩苴侯)로 삼았다.

[집해] 위소가 이르기를, "(추저는) 발해(渤海)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색은] 추(萩)의 음은 추(秋)이며 저(苴)의 음은 "저(자여반子餘反)"라고 하였다.

13. 한무제가 봉한 조선사람 5인의 직위명과 봉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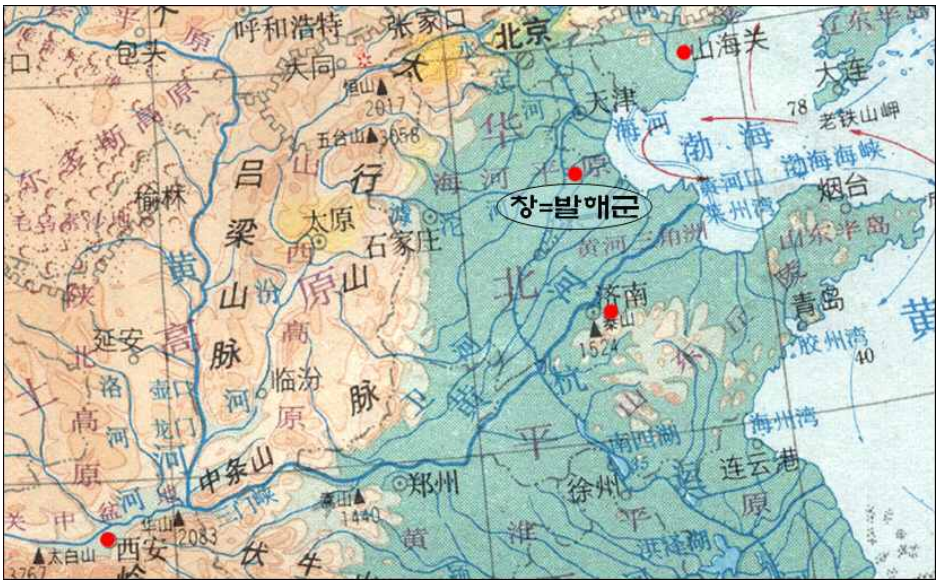
- 항복한 조선사람 5명에게 한무제가 직위(侯)를 봉(封)하였는데 그 위치가 모조리 중국 대륙내에 있다.

1. 이계상 삼(尼谿相 參) : 획(홰)청후(澅淸侯)

이 름	직 위	통치지역
이계상 삼 (尼谿相 參)	획(홰)청후 (澅淸侯)	산동성 제(齊) 지역 - 이유립 : 산동성 임치현 서북쪽인데 춘추때의 획음. 본시 니계땅

2. 한음(韓陰) : 추저후(萩苴侯)

이 름	직 위	통치지역
한음 (韓陰)	추저후 (萩苴侯)	발해(渤海) 지역 - 고금지명대사전 : 하간현, 창현 - 이유립 : 천진부 경운현 동쪽지방



[원문]

陝爲平州侯,
협위평주후,
[集解] 韋昭 屬梁父.
[집해] 위소 속량부.
長爲幾侯,
장위기후,
[集解] 韋昭曰 屬河東. [索隱] 幾縣名
[집해] 위소왈 속하동. [색은] 기현명
最以父死頗有功, 爲溫陽侯.
최이부사파유공, 위온양후.
[集解] 韋昭曰 屬齊.
[집해] 위소왈 속제.

[해설]

(장군왕)협(陝)을 평주후(平州侯)로 삼았다.
[집해] 위소가 이르기를, "(평주는)양부(梁父)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우거왕의 아들)장(長)을 기후(幾侯)로 삼았다.
[집해] 위소가 이르기를, "(기후는)하동(河東)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색은] "기(幾)는 현의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로인의 아들)최(最)는 아버지가 죽었고 자못 공이 있다 하여, 온양후(溫陽侯)로 삼았다.
[집해] 위소가 이르기를 "(온양은) 제(齊)에 속한다"고 하였다.

3. 장군 왕겹(將軍 王唊) : 평주후(平州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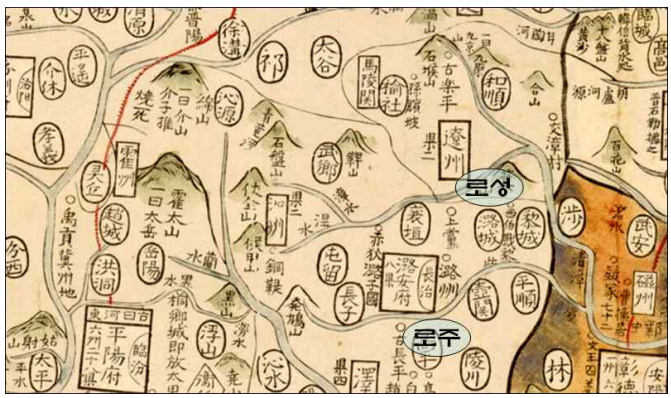
이 름	직 위	통치지역
장군 왕겹(협) (將軍 王唊)	평주후 (平州侯)	양부(梁父) 지역 - 고금지명대사전 : 산동 태안현 남쪽 60리. 사수현과 접경을 이룸 - 이유립 : 산동성 태안부 모현 서쪽지방

4. 장(長) (우거왕 아들) : 기후(幾侯)

이 름	직 위	통치지역
장(長) (우거왕 아들)	기후 (幾侯)	하동(河東) 지역 - 고금지명대사전 : 황하 동쪽 - 이유립 : 하동 상(湘)과 로(潞)의 사이, 현재의 산서성 로주

○ 로성의 위치 : 산서성 로주(潞州), 장치(長治)

노성	潞城		上黨郡	隋書	849	方輿	潞城縣,산서長治
노성	潞城	潞州	河東道	舊唐書	1477	方輿	潞城縣,산서長治
노성	潞城	潞州	河東南路	金史	639	方輿	潞城縣,산서長治
노성	潞城	潞州	晉寧路	元史	1381	方輿	潞城縣,산서長治
노성현	潞城縣		潞安府	方輿	1809	山西	長治 春秋潞子嬰兒國



5. 최(最) 로인(路人) 아들) 온양(溫陽侯) : 제(齊) 지역

이 름	직 위	통치지역
최(最) (로인路人 아들)	온양후 (溫陽侯)	제(齊) 지역 - 고금지명대사전 : 온양현은 현 수도의 양유(壤柔)현에 속한다. - 이유립 : 열수의 북쪽이니 오늘의 하남성 진평현. 옛 제 땅

○ 온양의 위치 : 하북성 회유(懷柔), 옛 제땅(하남성 진평)

→ 로인이 하북성 어양 사람이므로 하북성 회유 유역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온양	溫陽	齊地名	史記	地名考	287		
온양	溫陽	順州	中都路	金史	575	方輿	懷柔.하북北京

6. 조선 5군의 위치 종합

이 름	직 위	통치지역
이계상 삼 (尼谿相 參)	획(홰)청후 (澅淸侯)	산동성 제(齊) 지역 - 이유립 : 산동성 임치현 서북쪽인데 춘추때의 획음. 본시 니계땅
한음 (韓陰)	추저후 (萩苴侯)	발해(渤海) 지역 - 고금지명대사전 : 하간현, 창현 - 이유립 : 천진부 경운현 동쪽지방
장군 왕겹(협) (將軍 王唊)	평주후 (平州侯)	양부(梁父) 지역 - 고금지명대사전 : 산동 태안현 남쪽 60리. 사수현과 접경을 이룸 - 이유립 : 산동성 태안부 모현 서쪽지방
장(長) (우거왕 아들)	기후 (幾侯)	하동(河東) 지역 - 고금지명대사전 : 황하 동쪽 - 이유립 : 하동 상(湘)과 로(潞)의 사이, 현재의 산서성 로주
최(最) (로인路人 아들)	온양후 (溫陽侯)	제(齊) 지역 - 고금지명대사전 : 온양현은 현 수도의 양유(壤柔)현에 속한다. 하북성 회유 - 이유립 : 열수의 북쪽이니 오늘의 하남성 진평현. 옛 제 땅

7. 조선 5군의 위치 지도상 표시

○ 통치자도 5명의 조선인이었으며 그 백성도 조선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棄市。樓船將軍亦坐兵至列口。當待左將軍。擅先縱。失亡多。當誅。贖爲庶人。
左將軍徵至。坐爭功相嫉。乖計。
蘇林云列口縣名度海先得之

[원문]

左將軍徵至, 坐爭功相嫉, 乖計, 棄市.
좌장군징지, 좌쟁공상질, 괴계, 기시.
樓船將軍亦坐兵至列口
루선장군역좌병지열구
當待左將軍, 擅先縱, 失亡多, 當誅, 贖爲庶人.
당대좌장군, 천선종, 실망다, 당주, 속위서인.

[索隱] 蘇林云 列口縣名. 度海先得之.
[색은] 소림운 열구현명. 도해선득지.

[해설]

좌장군(左將軍)을 불러 들여서, 앉아서 공을 다투고 서로 시기하여 계획을 어긋나게 한 죄에 따라 기시(棄市)의 형에 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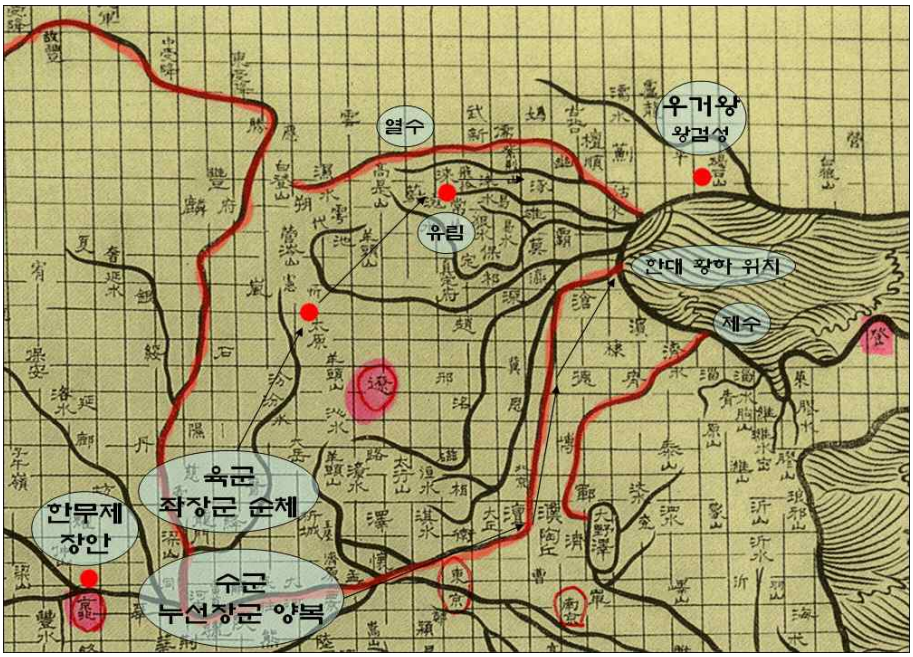
누선장군 역시 군사를 이끌고 열구(列口)에 도착하였으면 마땅히 좌장군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먼저 군사를 풀어 많은 군사를 잃게 하였으니 주살해야 마땅하나, 그 죄를 용서하고 서인(庶人)으로 삼았다.

[색은]
소림(蘇林)이 이르기를, "열구(洌口)는 현의 이름이다.
해(海)를 건너서 먼저 닿는 곳" 이라했다.

○ 기시(棄市) : 죄인의 목을 베고 시체를 능지처참하여 길거리에 버리는 형벌
○ 열구(洌口) : 고 황하 하구, 천진 하류 현재의 고하, 영정하 하구

□ 열구(洌口) : 고 황하 하구, 천진 하류 현재의 고하, 영정하 하구

- 송나라 고지도인 우적도상 당시의 황하 표시



14. 사마천이 수륙양군이 패한 치욕을 한탄하다.

太史公曰右渠負固國以絶祀涉何誣功爲兵發首樓船將狹集解徐廣曰言其所將卒狹少及難離咎悔失番禺乃反見疑荀彘爭勞與遂皆誅兩軍俱辱將率莫侯矣

[원문]

太史公曰 右渠負固, 國以絶祀. 涉何誣功, 爲兵發首.
태사공왈 우거부고, 국이절사. 섭하무공, 위병발수.
樓船將狹,
루선장협,
[集解] 徐廣曰 言其所將卒狹少.
[집해] 서광왈 언기소장졸협소.
及難離咎. 悔失番禺, 乃反見疑.
급난리구. 회실번우, 내반견의.
荀彘爭勞, 與遂皆誅. 兩軍俱辱, 將率莫侯矣.
순체쟁로, 여수개주. 양군구욕, 장솔막후의.

[해설]

태사공(太史公)이 이르기를, "우거(右渠)는 지세가 험고한 것에만 의존하여 나라의 종묘사직을 끊어지게 하였고, 섭하(涉何)는 공을 거짓으로 꾸미려 하다가 군사에게 머리를 잃게 되었으며, 누선(樓船)은 적은 군사로서

[집해] 서광이 이르기를, " (누선장군의) 군사가 적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려움을 만나 닥쳐 허물을 벗어나려 하였다. 그리하여 안타깝게도 번우(番禺)를 잃고 오히려 의심을 받았다. 순체(荀彘)는 공손수(遂)와 더불어 공을 다투다가 함께 주살되었다. 두 장군의 군사가 모두 치욕을 당(兩軍俱辱)하여서 장수들 중에 제후가 된 자가 없었다." 라고 하였다.

[원문]

[索隱]
[색은]
述贊曰 衛滿燕人, 朝鮮是王.
술찬왈 위만연인, 조선시왕.
王險置都, 路人作相.
왕험치도, 로인작상.
右渠首羌, 涉何言罔上. 兆禍自斯, 狐疑二將.
우거수강, 섭하망상. 조화자사, 호의이장.
山遂伏法, 紛紜無狀.
산수복법, 분운무장.

[해설]

[색은]

찬술하여 이르기를, "위만(衛滿)은 연(燕)나라 사람이며 조선왕이 되어 왕험(王險)에 도읍하였다. 로인(路人)은 승상이 되었다. 우거(右渠)는 변방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섭하(涉何)는 천자를 속여 스스로 화를 불렀다. 두 장수를 의심한 위산(山)과 공손수(遂)는 법에 따라 주살되었다. 장계(狀啓)를 어지럽게 보고하여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장계(狀啓) : 벼슬아치가 임금의 명을 받들고 지방에 나가 민정을 살핀 결과를 글로써 올리던 계(啓).

[별 도 자 료]

1. **습수**(濕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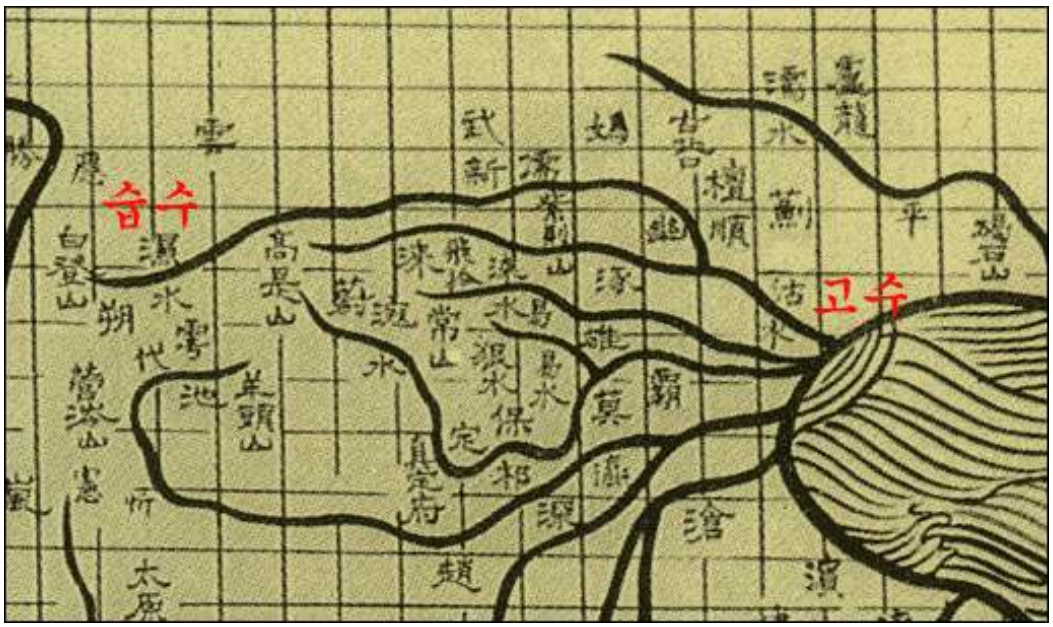
2. **고하**(沽河)

3. **패수**(浿水)

[별도자료 1] 습수(濕水)

○ 사마천의 사기 조선열전에 나오는 3개의 강, 즉 습수・열수・산수(또는 선수) 중 '습수(濕水)'는 산서성 대동시 유역에서 발원하는 강으로 산서성에서는 상간하(또는 상건하), 하북성에서는 영정하를 이름이다.

1. 중국 송나라 고지도인 '우적도'에 나오는 습수



- 중국 송나라 고지도인 우적도에 의하면 중국 태행산맥 서쪽 산서성 대동시 아래 백등산에서 발원하는 현재의 "상건하(또는 상간하)"를 습수(濕水)라 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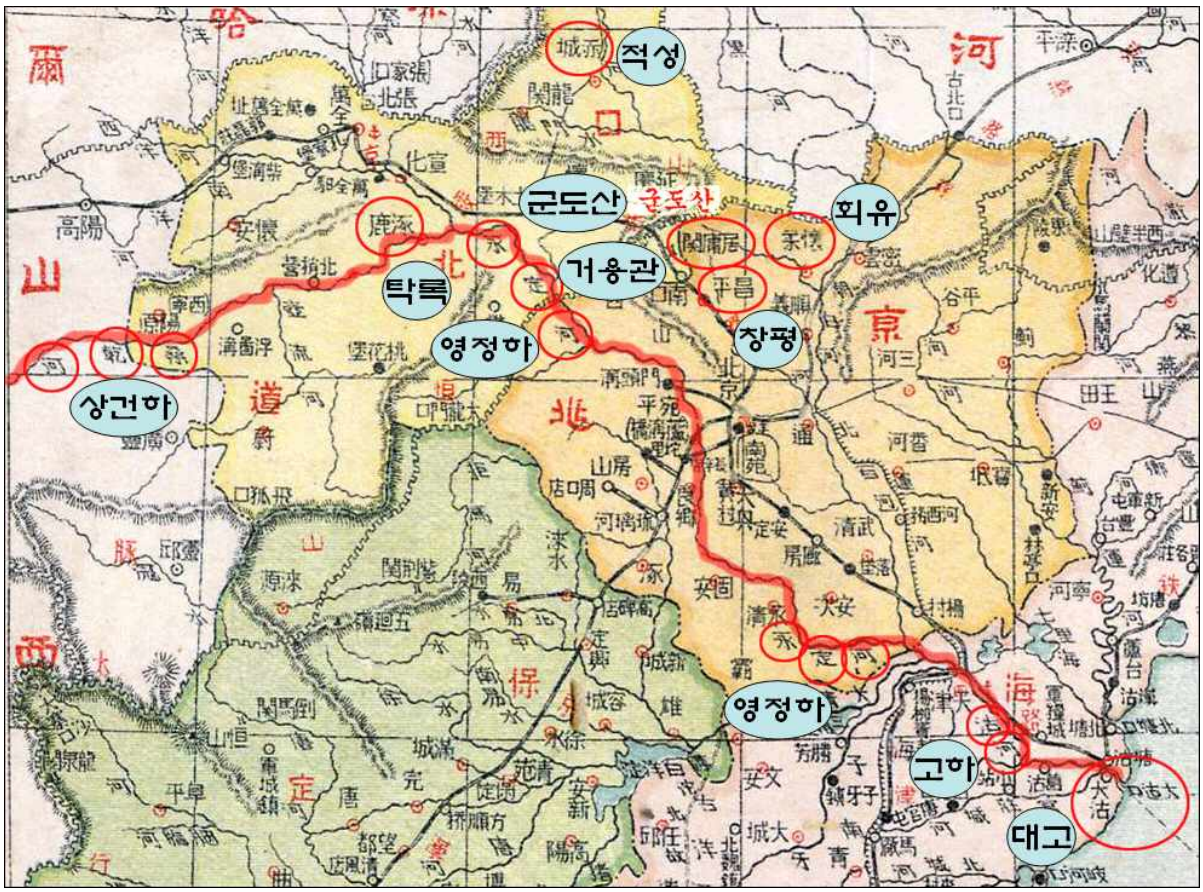
- 상건하는 동쪽으로 하북성 탁록을 경유하여 북경 북쪽 관청수고를 거쳐 북경 아래쪽을 휘감아 돌아 천진 하구를 거쳐 발해만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하북성에서는 "영정하"라 한다.

- 고지도상 발해만으로 빠지는 하구는 "고수(沽水)"라 한다. 이곳이 바로 단군조선이 진한, 마한, 번한으로 분치한 통치강역중 번한(위만조선)의 중심강이었던 “열수”였다.

- 한무제 수군이 도착한 곳도 바로 이 강의 하류인 "고수"유역으로 보이며 조선열전에 나오는 "열구"로 추정된다.

2. 중국 지도에 나오는 습수유역 지명

☞ 상건하(상간하), 탁록(상곡), 적성, 회래, 거용관, 군도산, 창평, 회유



3. 중국의 물길을 기록한 '수경주'에 나오는 '습수'에 대한 원문 해설

중국고지도 "우적도"에는 "수경주"에 나오는 "습수"를 "습여수"라 표기하고 있는데 두강은 동일한 강입니다

水經注目錄 武英殿聚珍版
수경주목록 무영전취진판
卷十四 濕餘水 沽河 鮑丘水 濡水 大遼水 小遼水 浿水
권십사 습여수 고하 포구수 유수 대료수 소료수 패수

수경(水經) 원문(原文)

水經注 卷十四 魏 酈道元 撰
濕餘水 沽河 鮑丘水 濡水 大遼水 小遼水 浿水

濕餘水出上谷居庸關東 東流過軍都縣南又東流過薊縣北
又北屈東南至狐奴縣西入于沽河
沽河從塞外來 南過漁陽狐奴縣北西南與濕餘水合爲潞河
又東南至雍奴縣西爲笥溝 又東南至泉州縣與清河合東入于海清河者派河尾也
鮑丘水從塞外來南過漁陽縣東 萬鮑丘水又西南歷狐奴城東又西南流注于沽河
又南過潞縣西 又南至雍奴縣北屈東入于海
濡水從塞外來東南過遼西令支縣北 又東南過海陽縣西南入于海
又東南過房縣西 又東過安市縣西南入于海 又玄菟高句麗縣有遼山小遼水所出
西南至遼隊縣入于大遼水也
浿水出樂浪鏤方縣東南過臨浿縣東入于海

1. 수경(水經)은 원래 상흠(桑欽)이 지었다고 되어 있으나 전하지 않고 위(魏)나라 력도원(酈道元)이 주(注)를 써서 수경주(水經注)를 쓴 것이 후대에 전해져 옴
2. 수경주 권14의 원문은 위 문장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력도원의 주해임.

水經注卷十四 **(수경주권14)**

□ 濕餘水(습여수) = 습수(濕水)

濕餘水出上谷居庸關東, 關在沮陽城東南六十里居庸界, 故關名矣.
습여수출상곡거용관동, 관재저양성동남륙십리거용계, 고관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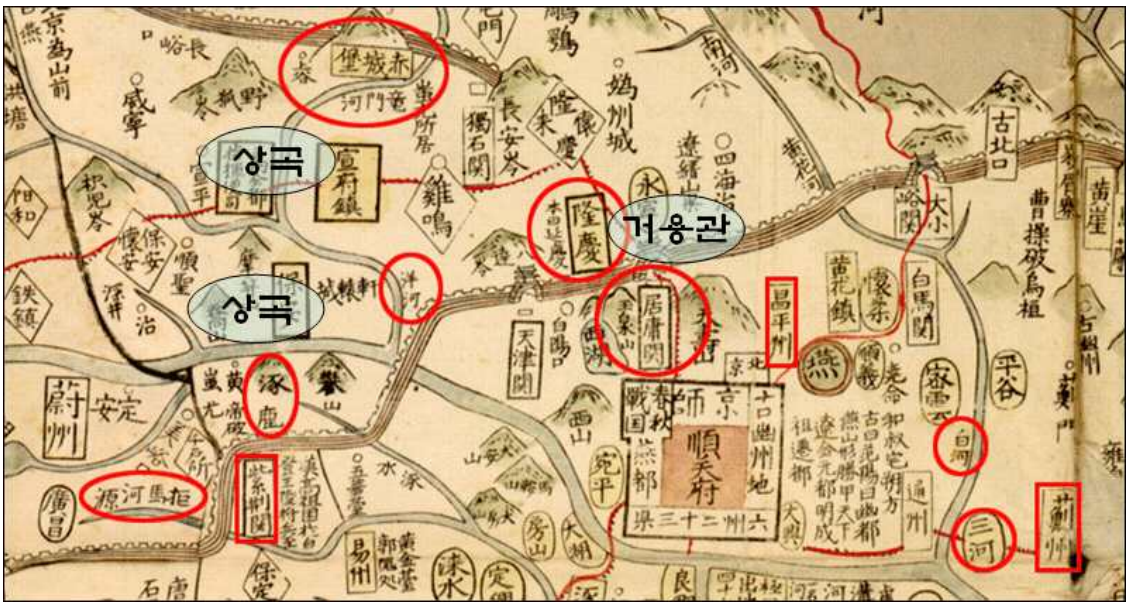
습여수는 상곡(上谷) 거용관(居庸關) 동쪽에서 나온다. 관(關)은 저양성(沮陽城) 동남쪽 60리에 있는 거용의 경계에 있다. 그러므로 관(關)이라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 상곡 : 하북성 탁록, 연경 유역
○ 거용관 : 하북성 북경 서북쪽

更始使者入上谷, 耿況迎之于居庸關, 卽是關也.
경시사자입상곡, 경황영지우거용관, 즉시관야.

"다시 비로소 사신을 상곡에 보내, 경황(耿況)이 거용관에서 맞이하였다."고 한 관이 바로 이곳의 관(關)이다.

○ 경황(耿況) : 후한시 상곡태수 이름



其水導源關山, 南流歷故關下, 溪之東岸有石室三層, 其戶牖扇扉, 悉石也, 蓋故關之候臺矣.
기수도원관산, 남류력고관하, 계지동안유석실삼층, 기호유선비, 실석야, 개고관지후대의.

그 수(水)는 관산(關山)에서 발원·인도되어 남으로 고관(故關)아래를 거쳐 흐른다. 계곡의 동쪽 기슭에는 돌로 된 3층 석실(石室)이 있고, 그 집의 창과 문은 모두 돌로 되어 있다. 고관(故關)을 돌로 덮어 씌워 망을 보기 위한 척후대이다.

南則絶谷, 累石爲關垣, 崇墉峻壁, 非輕功可擧, 山岫層深, 側道褊狹, 林鄣邃險,
남즉절곡, 루석위관원, 숭용준벽, 비경공가거, 산수층심, 측도편협, 림장수험,
路才容軌, 曉禽暮獸, 寒鳴相和, 羈官遊子, 聆之者莫不傷思矣.
로재용궤, 효금모수, 한명상화, 기관유자, 령지자막불상사의.

남쪽은 절벽의 골짜기이다. 돌을 쌓아 관(關)의 담장을 삼았다. 높은 담장과 벽은 가벼이 공을 가히 거론할 일이 아니다. 산봉우리는 겹겹이 깊으며 측면의 길은 좁다. 숲은 깊고 험하다. 길은 겨우 수레가 지날 정도이다. 아침엔 날짐승이 저녁엔 길짐승이 차갑게 울며 서로 화답한다. 말을 끄는 관리와 나그네가 그 것을 듣고 생각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는 자가 없다.

其水歷山南逕軍都縣界, 又謂之軍都關.
기수력산남경군도현계, 우위지군도관.

그 수(水)는 산의 남쪽을 거쳐서 군도현(軍都縣)의 경계를 지나는데, 또한 그 곳을 군도관(軍都關)이라 부른다.

○ 군도관(軍都關) : 하북성 북경 서북 군도산 (창평, 회래 지역)

○ 상간하 협곡 사진 : 상기표현과 같다.

續漢書 曰 :

尙書盧植隱上谷軍都山是也. 其水南流出關, 謂之下口, 水流潛伏十許里也.

속한서 왈 :

상서로식은상곡군도산시야. 기수남류출관, 위지하구, 수류잠복십허리야.

후한서에 이르기를, 상서(尙書)의 노(盧)나라 식은(植隱)이 말한 상곡 군도산이다. 그 수(水)는 남쪽으로 흘러 관을 흘러 나오는데 그 것을 가르켜 하구(下口)라 한다. 물이 10여 리(里)를 숨어 엎드리듯이 흐른다.

東流過軍都縣南, 又東流過薊縣北, 濕餘水故瀆東逕軍都縣故城南, 又東, 重源潛發,
동류과군도현남, 우동류과계현북, 습여수고독동경군도현고성남, 우동, 중원잠발,
積而爲潭, 謂之濕餘潭.
적이위담, 위지습여담.

동쪽으로 흘러 군도현의 남쪽을 지나며, 또한 동쪽으로 흘러 계현(薊縣)의 북쪽을 지난다. 습여수(濕餘水)는 옛 독(瀆)의 동쪽 군도현의 옛 성의 남쪽을 흘러간다. 또한 동으로 거듭 발원이 되어, 쌓여서 못을 이루는데 습여담(濕餘潭)이라 한다.

○ 계현(薊縣) : 하북성 계현

又東流, 易荊水注之, 其水導源西北千蔘泉, 亦曰丁蔘水, 東南流逕郁山西, 謂之易荊水.
우동류, 역형수주지, 기수도원서북천료천, 역왈정료수, 동남류경욱산서, 위지역형수.

또한 동쪽으로 흐르는데, 이형수(易荊水)가 그 것에 흐른다. 그 수(水)는 서북쪽 천료천(千蔘泉)에서 발원하는데, 또한 정료수(丁蔘水)라고도 한다. 동남쪽으로 흘러 욱산(郁山)의 서쪽을 흘러가는데, 그것을 이형수(易荊水)라 일컫는다.

○ 이형수(易荊水) : 하북성 이수(易水) 인근으로 보임

公孫瓚之敗于鮑丘也, 走保易荊, 疑阻此水也. 易荊水又東, 左合虎眼泉水,
공손찬지패우포구야, 주보역형, 의조차수야. 역형수우동, 좌합호안천수,
出平川, 東南流入易荊水.
출평천, 동남류입역형수.

공손찬(公孫瓚)이 포구(鮑丘)에서 패하고 이형(易荊)으로 달아나 목숨을 구하였는데 이 수(水)가 아닌가 한다. 이형수는 또한 동으로 흘러 가서 좌측의 호안천(虎眼泉)의 물과 합한다. 평천(平川)을 흘러 나와 동남쪽으로 이형수에 흘러 들어간다.

○ 포구(鮑丘) : 포구하가 북경 순천부 삼하(三河)현으로 나온다.

又東南與孤山之水合, 水發川左, 導源孤山, 東南流入易荊水, 謂之塔界水.
우동남여고산지수합, 수발천좌, 도원고산, 동남류입역형수, 위지탑계수.

또한 동남쪽으로 고산(孤山)의 물과 더불어 합쳐진다. 물은 천(川)의 좌측에서 발원한다. 고산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이형수에 흘러 들어가는데 탑계수(塔界水)라 한다.

○ 고산(孤山) : 하북 순천부 통주(通州)

又東逕薊城, 又東逕昌平縣故城南, 又謂之昌平水.
우동경계성, 우동경창평현고성남, 우위지창평수.

또한 동쪽으로 계성(薊城)을 지난다. 또한 동쪽으로 창평현(昌平縣) 고성의 남쪽을 지나는데, 또한 이 물을 일컬어 창평수(昌平水)라 한다.

○ 창평(昌平) : 하북성 북경시 서북, 창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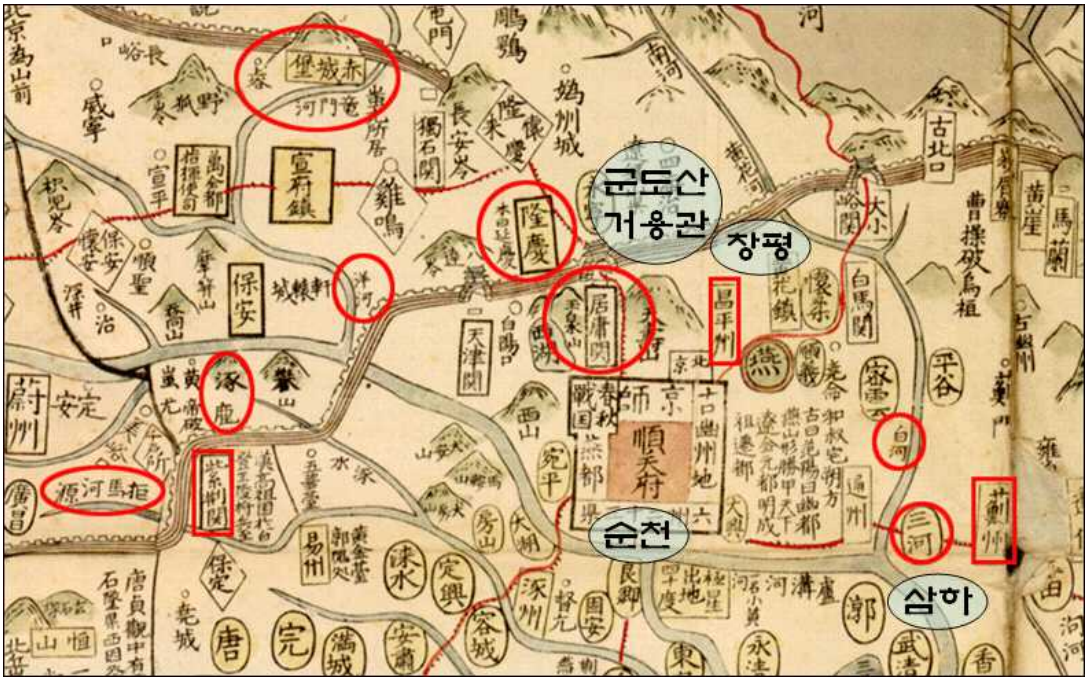
魏土地記 曰 :
위토지기 왈 :
위토지기(魏土地記)에 이르기를,

薊城東北百四十里有昌平城, 城西有昌平河, 又東流注濕餘水.
계성동북백사십리유창평성, 성서유창평하, 우동류주습여수.

계성 동북 140리에 창평성(昌平城)이 있고, 성의 서쪽에는 창평하(昌平河)가 있으며 또한 동으로 흘러 습여수에 이른다.

濕餘水又東南流, 左合芹城水, 水出北山, 南逕芹城, 東南流注濕餘水.
습여수우동남류, 좌합근성수, 수출북산, 남경근성, 동남류주습여수.

습여수는 또한 동남으로 흘러 좌측의 근성수(芹城水)와 합쳐지는데, 물(근성수)은 북산에서 흘러 나와 남으로 근성(芹城)을 지나며, 동남으로 습여수에 이른다.



濕餘水又東南流逕安樂故城西,
습여수우동남류경안악고성서,

습여수는 또 동남으로 안락(安樂)의 옛 성 서쪽을 지난다.
○ 안락(安樂) : 하북 정주, 어양군, 유주 소속

更始使謁者韓鴻北徇承制, 拜吳漢爲安樂令, 卽此城也.
경시사알자한홍북순승제, 배오한위안악령, 즉차성야.

다시 사신을 보내 알현을 하게 하고 한홍(韓鴻)이 북으로 순행하여 제도를 계승하게 하였는데, 오한(吳漢)을 안락령(安樂令)으로 삼은 곳이 바로 이 성(城)이다.

又北屈東南至狐奴縣西, 入於沽河.
우북굴동남지호노현서, 입어고하.

또 북으로 구부러져 동남에 호노현(狐奴縣)의 서쪽에 이르는데, 고하(沽河)에 흘러 들어 간다.
○ 호노현(狐奴縣) : 어양군, 하북 북경, 순의
○ 고하(沽河) : 영정하 하구

昔彭寵使狐奴令王梁南助光武, 起兵自是縣矣. 濕餘水于縣西南東入沽河.
석팽총사호노령왕량남조광무, 기병자시현의. 습여수우현서남동입고하.

옛날 팽총(彭寵)이 호노령(狐奴令) 왕량(王梁)에게 남쪽으로 광무(光武)가 군사를 일으킨 것을 돕도록 하였는데 이 현에서부터였다. 현의 서남에 있는 습여수는 동으로 고하(沽河)에 흘러 들어간다.
○ 팽총(彭寵) : 후한(後漢)을 세운 광무제(光武帝) 때 어양태수(漁陽太守)를 지낸 장군
○ 왕량(王梁) : 후한 때의 장군. 호노령을 지냈음
○ 광무(光武) : 후한을 건국한 광무제

故 地理志 曰 : 濕餘水自軍都縣東至潞南入沽是也.
고 지리지 왈 : 습여수자군도현동지로남입고시야.

옛 지리지(地理志)에 이르기를, 습여수는 군도현(軍都縣)으로부터 동으로 로(潞)에 이르러 남으로 고수(沽水)에 흘러드는데 이 곳이다.
○ 로(潞) : 하북 북경

[별도자료 2] 고하 (沽河)

沽河從塞外來, 沽河出禦夷鎭西北九十里丹花嶺下, 東南流, 大谷水注之,
고하종새외래, 고하출어이진서북구십리단화령하, 동남류, 대곡수주지,
水發鎭北大谷溪, 西南流, 逕獨石北界, 石孤生, 不因阿而自峙.
수발진북대곡계, 서남류, 경독석북계, 석고생, 불인아이자치.

고하는 새(塞)를 따라 밖으로 나온다. 고하는 어이진(禦夷鎭) 서북 90리 단화령(丹花嶺) 아래에서 흘러나와, 동남으로 흘러 대곡수(大谷水)에 이른다. 물이 진의 북쪽 대곡계(大谷溪)에서 발원하여 서남으로 흘러, 독석(獨石)북쪽 경계, 석고생(石孤生), 불인아(不因阿)를 지나 스스로 갖추고 있다.

又南, 九源水注之, 水導北川, 左右翼注, 八川共成一水, 故有九源之稱,
우남, 구원수주지, 수도북천, 좌우익주, 팔천공성일수, 고유구원지칭,
其水南流, 至獨石注獨石大谷水. 大谷水又南逕獨石西, 又南逕禦夷鎭城西,
기수남류, 지독석주독석대곡수. 대곡수우남경독석서, 우남경어이진성서,
魏太和中, 置以捍北狄也.
위태화중, 치이한북적야.

또한 남으로 구원수(九源水)의 공급원이 되고 있다. 물이 북천으로 흘러가고 좌우 날개로 공급되어 8개의 천이 합하여 하나의 수(水)가 이루어져서 구원(九源)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그 물은 남으로 흘러 탁석(獨石)에 이르러 대곡수(大谷水)의 공급원이 된다. 대곡수는 또 남으로 흘러 독석의 서쪽을 지나, 또 남으로 어이진(禦夷鎭)의 성(城) 서쪽을 지나간다.

○ 구원(九源) : 내몽골자치구 오원(五源)

又東南, 尖谷水注之, 水源出鎭城東北尖溪, 西南流逕鎭城東,
우동남, 첨곡수주지, 수원출진성동북첨계, 서남류경진성동,
西南流注大谷水, 亂流南注沽水.
서남류주대곡수, 란류남주고수.

또 동남으로 첨곡수(尖谷水)의 공급원이 된다. 물은 진(鎭)의 성(城) 동북의 첨계(尖溪)에서 발원하여 나오는데, 서남으로 흘러 진의 성 동쪽을 지나 서남으로 흘러 대곡수를 공급하며 어지럽게 남으로 흘러 고수(沽水)의 공급원이 된다.

又南出峽, 夾岸有二城, 世謂之獨固門, 以其藉險憑固, 易爲依据,
우남출협, 협안유이성, 세위지독고문, 이기자험빙고, 역위의거,
巖壁升聳, 疏通若門, 故得是名也.
암벽승용, 소통약문, 고득시명야.

또 남으로 골짜기에서 나온다. 좁은 강가에는 두 개의 성(城)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독고문(獨固門)이라 부른다. 그 험하고 견고함으로 인하여 쉽게 의거한다. 암벽은 우뚝 솟아 있고 트이고 통함이 문과 같아서 그 이름을 얻게 되었다.

沽水又南, 左合乾溪水, 引北川西南逕一故亭東, 又西南注沽水.
고수우남, 좌합건계수, 인북천서남경일고정동, 우서남주고수.

고수(沽水)는 또 남으로 흘러 좌로 건계수(乾溪水)와 합해진다. 북천 서남으로 흘러 일고정(一故亭)을 지나며, 또한 서남으로 흘러 고수의 공급원이 된다.

沽水又西南逕赤城東, 趙建武年, 幷州刺史王霸爲燕所敗, 退保此城.
고수우서남경적성동, 조건무년, 병주자사왕패위연소패, 퇴보차성.

고수는 또 서남으로 흘러 적성(赤城) 동쪽을 지나며, 조(趙)나라 건무(建武) 년간에 병주자사(幷州刺史) 왕패(王霸)가 연(燕)나라에 패하게 되자 후퇴하여 이 성(城)을 지키게 되었다.

○ 적성(赤城) : 하북 연경 서북쪽 백하상류

城在山阜之上, 下枕深隍, 溪水之名, 藉以變稱, 故河有赤城之號矣.
성재산부지상, 하침심황, 계수지명, 자이변칭, 고하유적성지호의.

성은 산 언덕의 위에 있으며, 아래에 깊은 해자(垓子)를 두르게 하였다. 계곡물의 이름은 명칭이 변한 까닭으로 고하(故河)에서는 적성이라 이름하였다.

沽水又東南與鵲谷水合, 水有二源, 南卽陽樂水也, 出且居縣.
고수우동남여작곡수합, 수유이원, 남즉양악수야, 출차거현.

고수는 또 동남으로 작곡수(鵲谷水)와 더불어 합해지며, 물은 두 개의 발원지가 있는데 남쪽은 즉 양락수(陽樂水)이다. 또한 거현(居縣)에서 나온다.

地理志 曰 : 水出縣. 東南流逕大翮山、小翮山北, 歷女祁縣故城南,
지리지 왈 : 수출현. 동남류경대핵산、소핵산북, 력녀기현고성남,

지리지(地理志)에 이르기를, 수(水)는 현에서 흘러 나와 동남으로 대핵산(大翮山), 소핵산(小翮山) 북쪽을 흘러 지나가며 여기현(女祁縣)의 고성을 지난다.
○ 여기현(女祁縣) : 상곡군

地理志 曰 : 東部都尉治, 王莽之祁縣也, 世謂之橫水, 又謂之陽田河.
지리지 왈 : 동부도위치, 왕망지기현야, 세위지횡수, 우위지양전하.

지리지(地理志)에 이르기를, 동부도위(東部都尉)가 다스리는데 왕망(王莽)의 기현(祁縣)이다. 세상에서는 그 물을 가르켜 횡수(橫水)라 부르며, 또 양전하(陽田河)라고도 한다.
○ 동부도위(東部都尉) : 산서성 일대를 통치하는 태수
○ 기현(祁縣) : 산서성 태원, 상곡군
○ 횡수(橫水) : 산서성 대동현

又東南逕一故亭, 又東, 左與候鹵水合, 水出西北山, 東南流逕候鹵城北,
우동남경일고정, 우동, 좌여후로수합, 수출서북산, 동남류경후로성북,
城在居庸縣西北二百里, 故名云候鹵, 太和中, 更名禦夷鎭. 又東南流注陽樂水.
성재거용현서북이백리, 고명운후로, 태화중, 경명어이진. 우동남류주양악수.

또 동남으로 일고정을 지나며, 또 동으로 흘러 좌측의 후로수(候鹵水)와 더불어 합해지는데, 물은 서북의 산에서 흘러 나와 동남으로 후로성(候鹵城) 북쪽을 지난다. 성은 거용현 서북 2백리에 있다. 성의 이름은 후로(候鹵)라 부른다. 태화(太和) 년간에 이름을 바꾸어 어이진이라 했다.
또 동남으로 흘러 양락수의 공급원이 된다.

陽樂水又東南傍狼山南, 山石白色特上, 亭亭孤立, 超出群山之表.
양악수우동남방랑산남, 산석백색특상, 정정고립, 초출군산지표.
又東南逕溫泉東, 泉在山曲之中. 又逕赤城西, 屈逕其城南, 東南入赤城河.
우동남경온천동, 천재산곡지중. 우경적성서, 굴경기성남, 동남입적성하.

양락수는 또 동남으로 방랑산(傍狼山) 남쪽을 흐른다. 산의 돌은 백색이며 위에 우뚝 서 있으며, 도도하게 홀로 서서 뭇 산의 표상으로 뛰어나게 드러내고 있다.

또 동남으로 온천(溫泉)의 동쪽을 지나며 온천은 산구비의 가운데에 있다. 또 적성의 서쪽을 지나며, 그 성의 남쪽을 구부러져 지난다. 동남으로 적성하(赤城河)에 흘러 들어 간다.

河水又東南, 右合高峰水, 水出高峰戍東南, 城在山上, 其水西南流, 又屈而東南, 入沽水.
하수우동남, 우합고봉수, 수출고봉수동남, 성재산상, 기수서남류, 우굴이동남, 입고수.

강의 물은 또 동남으로 흘러 우측의 고봉수(高峰水)와 합해진다. 물은 고봉(高峰)의 위수지(衛戍地) 동남에서 흘러 나온다. 성은 산 위에 있다. 그 물은 서남으로 흐르며, 또한 구부러져 동남으로 흘러 고수(沽水)에 들어 간다.

沽水又西南流出山, 逕漁陽縣故城西, 而南合七度水, 水出北山黃頒谷, 故亦謂之黃頒水,
고수우서남류출산, 경어양현고성서, 이남합칠도수, 수출북산황반곡, 고역위지황반수,
東南流注于沽水. 沽水又南, 漁陽水注之, 水出縣東南平地泉流, 西逕漁陽縣故城南,
동남류주우고수. 고수우남, 어양수주지, 수출현동남평지천류, 서경어양현고성남,

고수는 또 서남으로 흘러 산에서 흘러 나오며 어양현(漁陽縣)의 고성 서쪽을 지나며, 남쪽의 칠도수(七度水)와 합해진다. 물은 북산의 황반곡(黃頒谷)에서 흘러 나오므로 또한 황반수(黃頒水)라 부른다.

동남으로 흘러 고수의 공급원이 되며 고수는 또한 남으로 어양수(漁陽水)의 공급원이 된다. 물은 현의 동남에서 흘러 나와 평지의 샘을 흐른다.
서쪽으로 어양현(漁陽縣) 고성의 남쪽을 지난다.

應劭曰 : 在漁水之陽也. 考諸地說, 則無聞, 脈水尋川, 則有自.
응소왈 : 재어수지양야. 고제지설, 칙무문, 맥수심천, 칙유자.
今城在斯水之陽, 有符應說, 漁陽之名當屬此, 秦發閭左戍漁陽. 卽是城也.
금성재사수지양, 유부응설, 어양지명당속차, 진발려좌수어양. 즉시성야.

응소(應劭)가 말하기를, 어수(漁水)의 남쪽에 있다. 뭇 땅을 고찰하여 말하면 즉 들은 바가 없고, 물과 내의 맥을 찾으면 즉 스스로 있다. 지금 성은 사수(斯水)의 남쪽에 있다. 덧붙여서 응당히 말한다면 어양(漁陽)의 지명은 마땅히 이 곳에 속한다. 진(秦)나라 발려(發閭)의 좌측 위수지는 어양인데 즉 이 성이다.

漁水又西南入沽水. 沽水又南與螺山之水合, 水出漁陽城南小山.
어수우서남입고수. 고수우남여라산지수합, 수출어양성남소산.

어수는 또 서남으로 고수에 흘러 들어간다. 고수는 또 남으로 흘러 나산(螺山)의 물과 더불어 합해진다. 물은 어양성 남쪽 작은 산(혹은 남소산 南小山)에서 흘러 나온다.

魏土地記 曰：城南五里有螺山, 其水西南入沽水. 沽水又南逕安樂縣故城東,
위토지기 왈：성남오리유라산, 기수서남입고수. 고수우남경안악현고성동,

위토지기(魏土地記)에 이르기를, 성 남쪽의 5리에 나산(螺山)이 있다. 그 물은 서남으로 고수에 들어간다. 고수는 또한 남쪽으로 안락현(安樂縣)의 고성 동쪽을 지난다.
○ 나산(螺山) : 하북성 북경 북쪽 회래

晉書地道記 曰：晉封劉禪爲公國, 俗謂之西潞水也.
진서지도기 왈：진봉류선위공국, 속위지서로수야.

진서지도기(晉書地道記)에 이르기를, 진(晉)시기에 유선(劉禪)을 공국(公國)에 봉하였는데, 세속에서 서로수(西潞水)라 한다.

南過漁陽狐奴縣北, 西南與濕餘水合, 爲潞河 ;
남과어양호노현북, 서남여습여수합, 위로하 ;

沽水西南流逕狐奴山西, 又南逕狐奴縣故城西,
고수서남류경호노산서, 우남경호노현고성서,
漁陽太守張堪, 于縣開稻田, 教民種殖, 百姓得以殷富.
어양태수장감, 우현개도전, 교민종식, 백성득이은부.

남으로 어양 호노현 북쪽을 지나 서남으로 습여수와 더불어 합해지는데 로하(潞河)라 한다. 고수는 서남으로 호노산 서쪽을 흘러 지나고, 또 남쪽으로 호노현 고성 서쪽을 지난다. 어양태수(漁陽太守) 장감(張堪)이 고을에서 도전(稻田, 벼농사를 짓기 위한 논)을 개척하여, 백성에게 (벼를)심고 재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수확을 얻어서 부유해졌다.

童謠歌曰：桑無附枝, 麥秀兩岐, 張君爲政, 樂不可支. 視事八年, 匈奴不敢犯塞.
동요가왈：상무부지, 맥수량기, 장군위정, 악불가지. 시사팔년, 흉노불감범새.

동요가(童謠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 이르기를,
뽕나무는 가지가 붙은 것이 없고
보리 이삭은 두 갈래로 갈라져 피었구나
장감 태수가 정사를 펴니
즐거움이 헤아릴 수가 없어라
정사를 본지 팔년이 되어
흉노가 감히 변방을 침범하지 못하였다네

沽水又南, 陽重溝水注之, 水出狐奴山, 南轉逕狐奴城西, 王莽之所謂擧符也.
고수우남, 양중구수주지, 수출호노산, 남전경호노성서, 왕망지소위거부야.

고수는 또 남으로 양중구수(陽重溝水)가 공급원이 되는데 물은 호노산에서 나온다. 남쪽으로 호노성 서쪽을 흘러 간다. 왕망시대의 이른바 거부(擧符)다.

側城南注, 右會沽水. 沽水又南, 濕餘水注之. 沽水又南, 左會鮑丘水, 世所謂東潞也.
측성남주, 우회고수. 고수우남, 습여수주지. 고수우남, 좌회포구수, 세소위동로야.
沽水又南逕潞縣爲潞河.
고수우남경로현위로하.

측성 남에서 공급되어 우측으로 고수와 모인다. 고수는 또 남으로 습여수의 공급원이 된다. 고수는 또 남으로 좌측의 포구수(鮑丘水)와 모이는데 세간에서는 동로(東潞)라 부른다. 고수는 또 남으로 로하(潞河)가 된 로현(潞縣)을 지난다.

魏土地記 曰 : 城西三十里有潞河是也.
위토지기 왈 : 성서삼십리유로하시야.

위토지기(魏土地記)에 이르기를, 성의 서쪽 30리에 로하(潞河)가 있는데 이 곳이다.

又東南至雍奴縣西, 爲笥溝 ; 溧水入焉, 俗謂之合口也.
우동남지옹노현서, 위사구 ; 탑수입언, 속위지합구야.

또 동남으로 흘러 옹노현(雍奴縣) 서쪽에 이르는데, 사구(笥溝)라 한다. 루수(溧水)가 흘러 들어 간다. 세속에서는 그 것을 합구(合口)라 한다.

又東, 鮑丘水于縣西北而東出.
우동, 포구수우현서북이동출.
又東南至泉州縣, 與淸河合, 東入于海. 淸河者, 派河尾也.
우동남지천주현, 여청하합, 동입우해. 청하자, 파하미야.

또 동으로 흘러 포구수는 현의 서북과 동쪽에서 흘러 나온다. 또 동남으로 흘러 천주현(泉州縣)에 이르르며, 청하(淸河)와 더불어 합해지고 동쪽으로 바다에 흘러 들어간다. 청하(淸河)는 파생된 강(河)의 꼬리이다.

沽河又東南逕泉州縣故城東, 王莽之泉調也.
고하우동남경천주현고성동, 왕망지천조야.

고하는 또 동남으로 흘러 천주현 고성의 동쪽을 지나며, 왕망때의 천조(天調)이다.

沽水又東南合淸河, 今無水.
고수우동남합청하, 금무수.
淸、淇、漳、洹、滱、易、涞、濡、沽、滹沱, 同歸於海.
청、기、장、원、구、이、래、유、고、호타, 동귀어해.

고수는 또 동남으로 청하와 합해지는데 지금의 무수(無水)이다. 청(淸)、기(淇)、장(漳)、원(洹)、구(滱)、이(易)、래(涞)、유(濡)、고(沽)、호타(滹沱)가 바다에 함께 돌아간다.

故 經 曰派河尾也.
고 경 왈파하미야.
그러므로 수경(水經)에 이르기를 파하미(派河尾, 파생된 강의 꼬리)라 했다.

[별도자료 3] 패수 (浿水)

水經注卷十四(수경주권십사)

浿水出樂浪鏤方縣, 東南過臨浿縣, 東入于海
패수출낙랑루방현, 동남과임패현, 동입우해

패수(浿水)는 낙랑 누방현(鏤方縣)에서 흘러 나온다. 동남으로 임패현(臨浿縣)을 지나며, 동으로 바다에 흘러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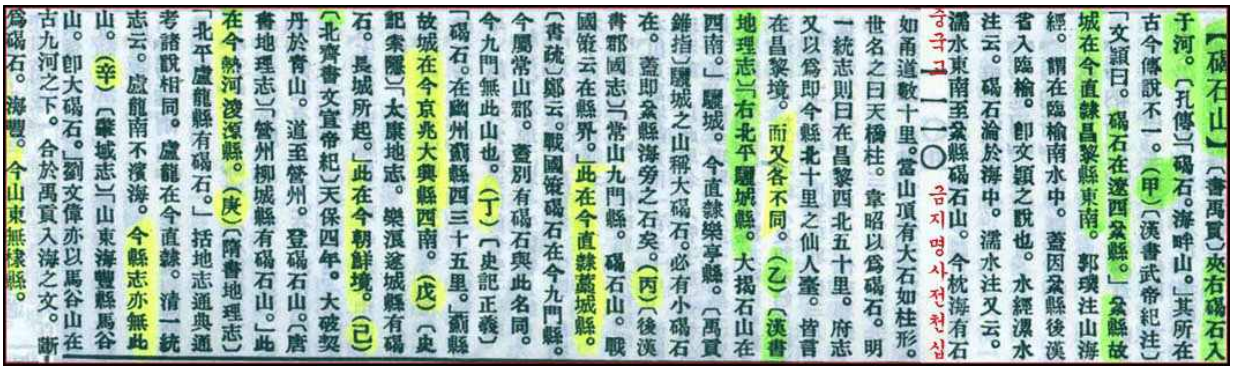
○ 중국지명사전 1,110쪽에 나타난 갈석산 기록

1. 갑 : 지금의 직예성 창려현 동남
2. 을 : (한서지리지) 우북평 여성현 - 지금의 직예성 낙정현
3. 병 : 지금의 직예성 고성현
4. 정 : 지금의 경조(京兆=북경) 대흥현 서남
5. 무 : 사기 색은
   - 太康地誌 樂浪 遂城縣有碣石. 長城所起
     태강지지. 낙랑 수성현 유갈석. 장성소기
     태강지지에 낙랑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고 써 있다.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곳.
   - 此在今朝鮮境(차재금조선경) : 이곳은 지금의 조선 지경이다.
   ☞ 중국 사서에는 대부분 수성은 하북성 청원(淸苑)이라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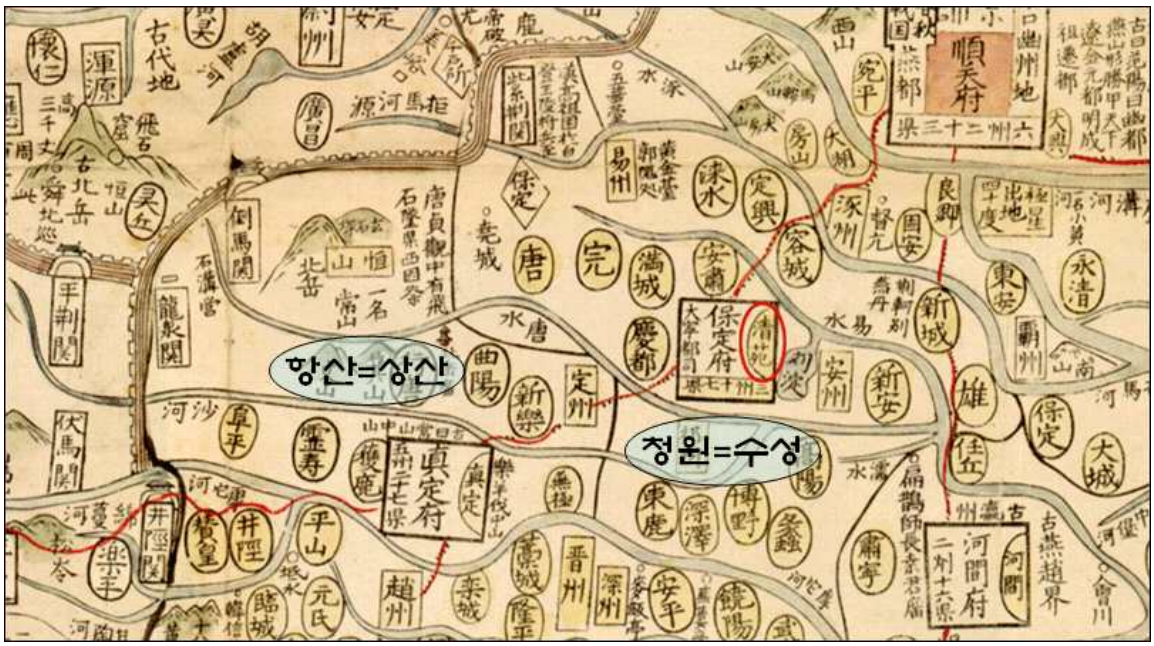
수성	遂城		樂浪郡	後漢書	3530	方輿	
수성	遂城	樂浪郡	平州	晋書	427	方輿	
수성	遂城		上谷郡	隋書	858	方輿	遂城廢縣(安肅縣),하북淸苑
수성	遂城	易州	河北道	舊唐書	1512	方輿	安肅(遂城廢縣),하북淸苑
수성	遂城	遂州	中都路	金史	579	方輿	安肅(遂城廢縣),하북淸苑
수성	遂城	寧陽縣	兗州府	方輿	1412	山東	蛇邱廢縣東北
수성폐현	遂城廢縣	安肅縣	保定府	方輿	0537	河北	淸苑 戰國燕之武遂也
수성	遂成		樂浪郡	漢書	1627	方輿	

6. 기 : 지금의 열하 능원현
7. 경 : 지금의 북평 노룡현
8. 신 : 지금의 산동성 무예현

- 중국고금지명대사전 1,110쪽 갈석산 원문



【碣石山】〔書禹貢〕夾右碣石入于河。〔孔傳〕「碣石。海畔山。」其所在古今傳說不一。(甲)〔漢書武帝紀注〕「文穎曰。碣石在遼西絫縣。」絫縣故城在今直隸昌黎縣東南。郭璞注山海經。謂在臨榆南水中。蓋因絫縣後漢省入臨榆。卽文穎之說也。水經濕水注云。碣石淪於海中。濕水注又云。濕水東南至絫縣碣石山。今枕海有石如甬道數十里。當山頂有大石如柱形。世名之曰天橋柱。章昭以爲碣石。明一統志則曰在昌黎西北五十里。府志又以爲卽今縣北十里之仙人臺。皆言在昌黎境。而又各不同。(乙)〔漢書地理志〕「右北平驪城縣。大揭石山在西南。」驪城。今直隸樂亭縣。〔禹貢錐指〕驪城之山稱大碣石。必有小碣石在。蓋卽絫縣海旁之石矣。(丙)〔後漢書郡國志〕「常山九門縣。碣石山。戰國策云在縣界。」此在今直隸藁城縣。〔書疏〕鄭云。戰國策碣石在今九門縣。今屬常山郡。蓋別有碣石與此名同。今九門無此山也。(丁)〔史記正義〕「碣石。在幽州薊縣西三十五里。薊縣故城在今京兆大興縣西南。(戊)〔史記索隱〕「太康地志。樂浪遂城縣有碣石。長城所起。」此在今朝鮮境。(己)〔北齊書文宣帝紀〕天保四年。大破契丹於青山。道至營州。登碣石山。〔唐書地理志〕「營州柳城縣有碣石山。」此在今熱河灤源縣。(庚)〔隋書地理志〕「北平盧龍縣有碣石。」括地志通典通考諸說相同。盧龍在今直隸。清一統志云。盧龍南不濱海。今縣志亦無此山。(辛)〔輿域志〕「山東海豐縣馬谷山。卽大碣石。」劉文偉亦以馬谷山在古九河之下。合於禹貢入海之文。斷爲碣石。海豐。今山東無棣縣。



望狐
南村
广灵
蔚县
暖泉
南安寺塔
草沟堡
大河南
镇厂
1991
磁家务
丰台
浑源
恒山
2017
大磁窑
항산
白洞
野三坡
周口店
房山
房山区
张坊
琉璃河
上庄
烟煤洞
灵丘
驿马岭
紫荆关
涿州市
王庄堡
梁各庄
涞水
高碑店市
大营
太白山
2234
南上屯
涞源
王安镇
安各庄水库
易县
(易州)
定兴
插箭岭
白石山
2018
良岗
塘湖
北河店
新城镇
北台顶
3058
神堂堡
下关
走马驿
银坊
狼牙山
1105
西北山
수성
涞水
容城
黄石口
岭西
神星
大王店
遂城
大寺各庄
雄县
倒马关
神南
满城
漕河
安新
龙泉关
砂窳
阜平
军城
顺平
满城汉墓
保定市
石咀
平阳
西大洋水库
灵山
江城
安州
南坨
2281
城南庄
唐县
望都
方顺桥
清苑
同口
高阳
旧城
王快水库
党城
(仁厚)
曲阳
任丘市

张家口
北京
恒山
2017
항산=상산
五台山
3058
청원=수성
天津
海河

許愼云 : 浿水出鏤方, 東入海.
허신운 : 패수출루방, 동입해.

허신(許愼)이 이르기를, "패수는 누방(鏤方)에서 흘러 나온다. 동으로 바다에 흘러 들어간다." 고 하였다.

一曰出浿水縣.
일왈출패수현.

다른 설은 “패수현에서 흘러 나온다.”라고 하였다.

十三州志 曰 : 浿水縣在樂浪東北, 鏤方縣在郡東. 蓋出其縣南徑鏤方也.
십삼주지 왈 : 패수현재낙랑동북, 루방현재군동. 개출기현남경루방야.

13주지(十三州志)에 이르기를, "패수현은 낙랑의 동북에 있으며, 누방현은 군의 동쪽에 있다. 무릇 그 현의 남쪽에서 나와 누방을 지난다."고 하였다.

昔燕人衛滿自浿水西至朝鮮.
석연인위만자패수서지조선.

옛날 연나라 사람 위만이 패수의 서쪽으로부터 조선에 이르렀다.

朝鮮, 故箕子國也. 箕子敎民以義, 田織信厚, 約以八法, 而下知禁, 遂成禮俗.
조선, 고기자국야. 기자교민이의, 전직신후, 약이팔법, 이하지금, 수성례속.

조선은 옛 기자국이다. 기자는 백성을 의로써 가르치고, 농사짓고 베짜는 일을 신의와 후의로 하였고, 여덟가지 법으로써 약조를 정하였으며, 백성들이 금하는 바를 알도록 하여 마침내 예절의 풍속을 이루었다.

※ 중국내에 보이는 기자의 흔적

- 하북성 학벽시 : 기자사당
- 산동성 하택시 : 기자무덤
- 하남성 서화 : 기자가 살던곳

戰國時, 滿乃王之, 都王險城, 地方數千里, 至其孫右渠.
전국시, 만내왕지, 도왕험성, 지방수천리, 지기손우거.

전국시대에 위만이 이에 그 곳(조선)의 왕이 되어, 왕험성에 도읍하였다. 땅은 수천리이며, 그 후손 우거(右渠)에 이르렀다.

漢武帝元封二年, 遣樓船將軍楊僕, 左將軍荀彘討右渠, 破渠于浿水, 遂滅之.
한무제원봉이년, 견누선장군양복, 좌장군순체토우거, 파거우패수, 수멸지.

한무제 원봉2년 누선장군 양복(楊僕), 좌장군 순체(荀彘)를 보내 우거를 토벌하게 하여, 패수에서 우거를 깨뜨리니 마침내 그 곳(위만조선)을 멸망시켰다.

若浿水東流, 無渡浿之理, 其地今高句麗之國治, 余訪蕃使言城在浿水之陽, 其水西流徑故樂浪朝鮮縣, 卽樂浪郡治.
약패수동류, 무도패지리, 기지금고구려지국치, 여방번사언성재패수지양, 기수서류경고낙랑조선현, 즉낙랑군치.

만약 패수가 동쪽으로 흐른다면 패수를 건널 방법이 없다. 그 땅은 지금 고구려에서 다스리는데, 내가 번(蕃)을 방문하였을 때 사신이 성(城)이 패수의 남쪽에 있으며 그 물은 서쪽으로 옛 낙랑 조선현을 지나가는 즉 낙랑군에서 다스린다.

漢武帝置. 而西北流 故 地理志 曰 : 浿水西至增地縣入海.
한무제치. 이서북류 고 지리지 왈 : 패수서지증지현입해.

한무제때 설치하였으며 서북쪽으로 흐르는 까닭에 지리지에 이르기를, 패수는 서쪽으로 증지현(增地縣)에 이르러 바다에 흘러 들어간다.
(주) 한서지리지의 낙랑군에 증지현 이름이 보임

又漢興, 以朝鮮爲遠, 循遼東故塞之浿水爲界.
우한흥, 이조선위원, 순료동고새지패수위계.

또한, 한(漢)이 흥할 때 조선이 멀기 때문에 요동의 옛 요새에 있는 패수를 따라 경계로 삼았다.

考之今古, 于事差謬, 蓋 經 誤證也.
고지금고, 우사차류, 개 경 오증야.

지금 옛 일을 고찰하건대, 일이 어긋나서 오류가 있는데, 무릇 수경(水經)의 그릇된 증거이다.

※ 열수, 패수

- 열수 : 상건하, 영정하
- 패수 : 조하

사기 조선열전

발행일자 : 신시개천 5906년(A.D. 2008년)
음력 9월 27일(양력 10월 25일) 초판발행

지 은 이 : 송준희
홈페이지 : http://www.coo2.net
이 메 일 : songjunh@empal.com

사전 동의없는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본 교재는 우리역사의 비밀(www.coo2.net) 교육용 자료입니다.

[비매품]